韓國文化속의 濟州地域文化의 特殊性과 發展方向*

梁英雄** · 金鍾太*** · 金昞澤**** · 李起旭*****

Ⅰ. 序　　論

1. 硏究의 動機

제주사회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추세와 궤를 같이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불과 20여년전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며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도 당연한 듯이 저질러 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의 충격이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전통문화의 부문에서이다. 제주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혹독한 역사적 시련을 경험해왔고 그러면서도 시련을 이겨내며 생활의 소중한 지혜를 잃지 않았고 어려움이 클 수록 그들이 간직해온 지혜로 흔들림이 없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었다. '제주인의 역사를 읽는 사람은 그것이 눈물의 역사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듯이 제주인은 고려 시대에는 일백년 동안의 몽고인의 지배를 받았고, 이조 오백년 동안에는 한반도 중심부 사회로부터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차별적 대우속에서 살아왔다. 그래도 제주인이 제주적인 것을 오늘날까지 떳떳하게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제주인의 지혜의 소산인, 제주적인 정신, 즉 근면, 성실, 정직, 진취, 협동의 정신(신용하 1990)을 제주인이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주인의 정신은 바로 제주문화속에 뿌리를 두고 세대를 거치며 내려온 제주인의 힘의 원천이다.

---

*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지역개발 연구과제 학술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 人文大學 史學科 副敎授
*** 人文大學 獨語獨文學科 副敎授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副敎授
***** 人文大學 英語英文學科 助敎授

[illegible]은 육지부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도식적이고 경직된 인간관계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농대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소중히하는 성실성과 근면에 토대를 둔 그러한 문화였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제주정신을 뚜렷이 구현하고 있던 것은 제주의 여성들이다.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에 친숙했던 사람의 눈에는 제주사회가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모중심적 사회로 비치기도 할 정도로 제주의 여성들은 노동을 숙명처럼 여기며 가정에서, 밭에서, 그리고 바다에서까지도 땀을 흘려왔다. 바다의 어장이나 목장 등 대부분의 자원을 마을공유제로 유지하면서 사소한 가정일까지도 서로 협동하며 처리하던 때는 농사일이 생계의 주가 되던 때였다.

그러나 변화의 징조는 일찍부터 나타났다. 60년대부터 생계농업의 작물들이 부분적으로 외부사회의 수요에 따라 감귤로 대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그 힘이 이 고장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제주사회는 또다시 외부사회의 힘에 의해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관광산업이 파고들면서 제주사회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地價는 농업 생산양식이 달라지면서 들먹였고 관광시설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달라져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외부의 자본가들의 거액의 자본이 제주땅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제주사회는 도시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은 한라산 남북으로 각각 비대해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두 도시에 흡수되어 갔고 이와 더불어 제주 선주민들이 누적해온 생활경험은 하나 둘 잊혀져 갔다.

이처럼 농업의 상업화, 지역 전반이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과거의 협동과 근면에 토대를 둔 공동체적 생활 형태는 붕괴되었고 호혜성에 기초한 더불어 사는 이웃에 대한 개념도 잊어지게 되었다. 제주사회의 제반변화 현상과 더불어 제주인들은 철저한 개인주의의 추구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파괴해 버렸고 따라서 시민 정신이 좌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출주부의 증가(제주신문 1990.5.3.), 농촌에 도시형 범죄의 증가(제민일보 1990.6.4.), 조직 폭력배의 등장과 이들의 잔혹한 행위들, 청소년 범죄의 흉폭화(제주신문 1990.4.27.)등은 병든 사회의 몇가지 예들에 불과하며, 이러한 예들 만으로도 우리 제주사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인식케한다.

제주사람이 '개미처럼 일한다'는 말은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로 들린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에는 노임이 폭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반 부문의 일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세태가 달라짐은 불가피하지만 어떤 변화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마저 망각하게 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된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위기와 혼돈과 더불어 질서와 창조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적어도 우리는 공동선을 지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로의 파행적인 변모는 무엇보다도 전통과의 단절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우

리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제주 전통문화의 정체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硏究의 方法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주문화에 관한 역사학적, 고고학적, 민속학적, 그리고 인류학적 연구의 성과들을 귀납적 혹은 연역적으로 재해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제주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지역문화의 특질과 본질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추출하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4명의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 제주문화의 영역을 언어, 역사, 사회, 종교, 예술 분야로 나누고 기존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제주문화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나가고자 했다. 위의 문화영역에서의 제주문화적 특성의 검증은 각 연구자가 한국문화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비교연구의 과정을 거쳐 검출된 내용을 최종 원고로 수합하고 연구자 전원이 그것의 타당성을 토론한 다음, 조사된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토대로 본 연구의 최종 논문의 내용과 이를 전개할 이론적 틀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의 시도였던 문화 철학적, 문화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제주문화의 정체를 규명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논고의 전개를 인류학적인 방법 특히 생태인류학의 방법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원래의 시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로는 제주문화적 특성이 환경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전 연구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제주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추출하고 육지부의 문화와 비교하여 제주문화의 특수성의 타당함을 확인한 다음, 둘째로 제주지역 문화의 특수성과 타 지역 문화의 총화로 이루어지는 한국문화 전반의 특성을 한국의 지역문화의 요소들간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해명하고자 했으며, 셋째로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한 다음 현재의 제주문화의 양상을 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산업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속에서 전통적 제주문화와 변모되어 가는 문화의 편차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문화적 편차가 어떠한 근거위에 제주지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제주문화의 미래의 전개방향을 진단하고 그 발전방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화항목의 분류는 생활문화, 무형문화 그리고 유형문화로 크게 나누었으며 여기에서 생활문화의 영역에서는 역사, 언어, 사회조직, 종교, 경제활동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무형문화로는 민요, 의례와 놀이가 언급되고 있으나 주로 민요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형문화로는 그림, 서예, 조각, 건축양식, 유물과 유적 등이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3. 硏究의 目的

우리의 연구는 한국문화속에서의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찾아내고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문화의 총합인 한국문화의 풍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실천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규정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지역문화의 한국문화속에서의 차별성 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문화와의 상호교류와 통합과 조화의 관계가 밝혀질 때, 지역문화의 창달을 통한 한국문화 발전의 실천적 방향이 제시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라는 동일한 문화영역에서 다시 지역문화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문화현상이 워낙 복잡하다던가, 작은 문화영역에서의 문화의 특이성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오늘날 문화의 획일성에로의 경향이 심화되어 가면서 지역고유의 전통문화가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의 상실로 인한 문화의 획일화 현상은 문화 발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다양한 토양에서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고, 몇 개의 꽃들이 시들드라도 전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듯이 문화의 생명력과 힘은 다양성에서 비롯한다. 다양성이 획일화 될 때 문화의 화원은 끝내 시들어 버리고 만다. 문화의 원천이 인간의 정신에 있는 한, 획일화는 정신의 획일화와 경직성을 가져오고, 정신의 본질이 자유에 있는 한, 정신의 획일화와 고착하는 정신의 고사를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의 획일화나 정신의 단면화를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길이 한국문화의 풍요로운 전개를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러한 확신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지역문화의 전통을 회복하여 한국문화 발전을 위한 토양으로서의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재인식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시간과 공간의 다양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화의 다양성을 회복하여 우리의 문화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점점 지배적으로 되어가는 기술문화, 도시문화, 대중문화, 그리고 서양문화가 한국문화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압도하고 소멸시켜서 우리 문화의 단순화와 획일화로 이끌어 우리문화를 고갈시키게 해서는 안되겠다. 문화들 사이에서 어떤 한 문화가 우월하다든가 완전하다든가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문화가 불완전하기에 다양한 문화의 조화가 완전한 문화에 가장 가깝다. 다른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훌륭한 문화를 끊임없이 수용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과거의 훌륭한 문화전통을 현재에 다시 수용하고 계승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 중심적 문화

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겠지만, 점점 잊혀져가는 소홀히 되어 가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꾀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진 우리의 문화의 화원을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인류학적, 문화철학적, 문화비판적인 시각에서 지역문화의 활성화의 방안으로 우리는 제주 문화의 정체를 먼저 규정해 볼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넓은 범위라 자칫하면 경험적 인식을 빠뜨린 허구화를 경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흡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문화의 다양화와 풍요화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지역문화를 새롭게 되살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Ⅱ. 地域文化研究의 理論的 背景

일반적으로 지역이란 인접된 지리적 공간과 구분될 수 있는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동질적인 영역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영역은 일정한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특정한 지표에 의하여 동질적이며, 주변의 지리적 공간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특정한 지표에 의해 동질적이며, 주변의 지리적 공간과 구분되는 경계를 지니면서 현상들간에 결합된 관련성으로부터 유래된 응집력을 지니게 된다(박영한 1985).

지역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은 생활공간의 개념이며 이러한 공간속에서의 집단적인 생활경험의 결과로 동질적인 사고와 생활유형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역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 사고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모둠살이하는 영역적 동물"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집단을 하나의 영역으로 응집케하는 요인은 집단자체의 내부적인 의지도 있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외부적 힘들의 작용이 있는데, 이 외부적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연적 요인(natural factor)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라는 집단적인 생활 공간의 경계는 바로 이러한 두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지역문화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자연적 요인은 인간 외적인 요인으로 자연 환경을 뜻하며 인간이 거주하게 되는 서식처의 특성을 가리킨다. 서식 환경의 특성이 한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널리 주목되어온 것으로 이를테면 산이나 계곡, 강이나 바다 등이 지역적 경계를 형성하는 환경적 요소들이다. 특히 기술이 단순한 사회들 사이에 자연적 장벽은 집단을 외부로부터 고립케하고 고립된 집단의 동질화와 외부 집단과의 이질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은 많은 인류학자들의 異文化의 연구에

서 제시되었다. 한국의 지역사회 중에서 산촌이나 도서마을은 이러한 지리적 장애에 의해 구분되는 지역사회의 예이다.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국가조직의 토대가 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계급을 규정하고 계급간의 교류를 제한함으로써, 또는 일정 집단의 거처를 특정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특히 지역문화 형성에 미치는 중심부 사회의 제도나 정책의 영향은 결정적이어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역문화는 첫째, 전체사회와의 관계의 고려와, 둘째, 지역사회의 특수한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셋째, 제도와 환경요인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까지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인류학에서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모색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환경요소를 문화연구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는 분야는 생태인류학이다. 주로 생물학의 성과를 도입함으로써 인간과 물리적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주목함으로써 문화연구의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정립된 이러한 접근방식은 스튜어드(Steward 1955)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어떤 사회가 그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적응이 내적인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확인하려 했다.

여기에서의 문화의 개념은 적응기제가 된다. 기술이 단순한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생존이 그들이 주된 관심이었는데 상이한 사회제도가 특별한 기술에 의해, 특정의 환경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직접적인 반응의 결과임이 지적될 수 있었다. 그래서 스튜어드의 방법은, 첫째, 환경과 기술과의 상호관계, 둘째, 행동유형과 기술의 상호관계, 셋째, 그러한 행동유형이 문화의 다른 부분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그는 문화의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들 보다 좀 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다. 문화의 특정한 영역을 문화핵심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영역인 생계활동 및 경제제도로 보았다. 그러므로 적응의 분석은 유사한 환경에서의 현재의 문화의 특성이나 기원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확인하는데 집중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환경을 이용하는 생계의 기술과 긴밀히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스튜어드의 방법은 기술이 단순한 사회를 대상으로 환경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서구 산업사회를 포함하여 복합사회의 분석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후자의 사회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하고, 환경에의 적응능력을 고도로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사회적인 관계들이나 사회 정책적인 차원의 고려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정한 환경의 이용은 한 사회 자체가 아니라 외부 사회의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베네트(Bennett 1974)는 스튜어드의 문화생태학이 크고 좀 더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회를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생태계라는 개념대신 사회자연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체계는 환경과 자원, 기술과 사회조직, 그리고 이념으로 구성되며 특정 문화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환경은 서식처내의 인간 외적인 요소들로서 기후, 물, 공기, 토양 등의 물리적 요소와 생물 유기체를 지칭한다. 특히 환경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체계에 관여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단순한 물리적 요소만이 아니라 자극과 구속력, 정보, 불확실성을 내포한 실체로 파악되고 있다. 자원은 환경의 일부를 이루는 요소로서 인간의 에너지원이나 물자로 이용될 수 있는 동식물을 비롯한 무생물적 부문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기술은 인간의 유목적적인 행위의 소산으로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유기체까지도 다루기 위하여 발달된 것으로서 사회조직과 긴밀한 관계속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문화형성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기술은 다양한 양과 종류의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가능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특히 식량을 제한함으로써 인구밀도를 제한하고 그래서 사회체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조직은 인간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선택된 사회적 관계의 체계를 말한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행동을 위한 협정 뿐만 아니라 인구, 분화, 권력, 의례 등의 제도적인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끝으로 이념은 집단이 갖는 가치, 욕구로서 기술과 사회조직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기술이나 조직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이다.

지금까지 특정문화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베네트의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제주지역이 자연적인 요소, 즉 해수의 장애로 외부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전체사회의 부분사회로 존재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한반도의 국가조직의 일부를 이루는 복합사회였다는 사실에서 제주 문화의 특수성을 설명할 때 베네트의 방법은 유익한 연구의 모델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외부사회의 제도나 정책적인 차원이 어떻게 제주 도서 생태계와의 상호작용을 이루었고 문화적 특성을 이루게 하였는지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Ⅲ. 韓國文化와 地域文化

문화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와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세계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문화세계는 인간정신을 매개로하여 자연세계가 의미화되고, 변용되고, 지식화되고, 예술화되고, 사회화, 역사화되고, 종교화되고, 제도화, 관습화된 제2의 자연이다. 자연적 세계가 물질적이고, 유한하고, 폭력적이고, 낯선 세계라면 문화의 세계는 세계의 자연성을 인간성이 대체하는 인간화된 세계이다. 다시말하면 자연적 세계가 필연성의 세계라면 문화적 세계는 물질적 필연성이 완화되고 인간의 행복과 선이 신장된 자유의 세계이다. 그러기에 문화의 전개방향은 진리와 선과 미가 실현된 인간적 세계에로의 방향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적 세계를 유토피아적 세계로 형성해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문화는 변천해 가고, 또 발전해 가야한다. 문화의

보편적 특질은 여기에 있다.

인류가 지구와 우주라는 자연적 세계에서 삶을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문화유형들이 있었다. 시간적으로는 선사, 고대, 중세, 근대와 현대의 문화가 있었고 공간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있었고, 또 이것들을 세분화 시키면 마침내는 민족문화에서 지역문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화로 분화된다.

문화의 형태로는 문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철학과 지식, 과학과 기술, 종교와 윤리, 역사와 사회, 예술로 분화된다. 이러한 문화의 여러 패러다임들은 자연적, 물질적, 필연적 세계속에서 가치있는 인간의 삶의 실현과 궁극적으로는 자유화되고 인간화된 세계로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과도기적 형태들이다. 어떤 문화의 패러다임들도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든가 문화의 보편성을 실현시키고 있지 못하다. 각 문화의 패러다임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면서 문화의 특이성을 드러낸다. 모든 문화의 패러다임들이 완전성과 보편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이성과 상대성을 가지기에 문화패러다임 사이에서 전파와 수용, 소멸과 변형 그리고 창조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문화의 보편적 이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수적이다.

모든 문화의 패러다임들이 완전하지 못하기에 하나의 문화 패러다임이 지배적으로 되어 다른 문화 패러다임들을 위축시킬 때, 문화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나타나고 문화는 마침내 불구가 되고 왜소화된다. 따라서 문화의 모든 패러다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문화의 보편성에 접근하는 길이다.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함은 문화 패러다임들 사이에 접촉과 종합이 이루어 지면서 그들 상호관계에서의 비판과 대립이 변증법적인 융합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패러다임들간의 단순한 병렬적 상호보완이 아니라 접촉과 교차와 수용에 있어서 주체적 부정과 비판을 거쳐 자각적 종합이 이루어질 때 문화의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문화의 재창조가 가능해 진다.

한국문화라는 하나의 문화 패러다임을 볼 때 여러 문화패러다임들이 한국인의 문화의식에 의해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각적으로 통합된 결과가 한국문화이다. 그러기에 한국문화가 문화의 보편성에로 발전하려면 다양한 문화패러다임들을 수용하여 그의 문화의 기반을 확대해 가면서 각 문화 패러다임들을 종합하여 더나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패러다임들이 능동적으로 종합될 때 문화는 풍요로움과 완전성과 보편성에로 발전해 가기에 한국문화를 이루는 공간적 문화 패러다임으로서의 각 지역 문화의 패러다임들도 그 존재가치가 결코 소홀히 되거나 망각되어서는 안된다. 지역문화의 패러다임들은 한국문화의 기반인 동시에 한국문화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문화 능력으로 그의 가치가 재인식 되어야 한다. 중심문화만이 지배적으로 변하고 지역문화가 소멸될 때 한국문화의 다양성의 기반은 그 만큼 약화되고 협소화되어 한국문화의 다양성의 종합화 능력은 감소되어 보편성과 완전성으로의 문화의 생명력있는 발전은 마침내 멈추고 말기 때문이다.

한국문화는 한국의 농경적, 토속적 기층문화에 불교문화, 유교문화 등의 외래문화가 유입되어 이것들이 문화복합을 이루고, 또 새로운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문화 복합적으로 생성발전해 간다. 그리고 한국의 중심문화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면서 약간의 변용을 거치고 지역에 따라 다른 자연적 조건에 의해 다른 문화적 특성이 첨가되고, 또 다른 문화요소들의 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지역적 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제주지역 문화만 하더라도 육지로부터 떨어진 여건에 의해 한국의 중심문화의 주변성을 드러내지만 그 만큼 한국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있고, 남방문화의 요소가 첨가되어 북방의 문화와 다른 이색적 특성을 보인다. 외래 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 지역문화의 모든 패러다임들이 역동적으로 문화복합을 이룰 때 한국문화는 더 보편적이고, 우월한 문화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서양의 과학 기술 문화도 그 문화의 본고장에서 이미 비판되는 상황에서 서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한국문화에 대해 지배적 문화로 자리잡게 할 때 한국문화의 발전은 획일화로 인해 생명력을 상실한다. 우리가 좋은 외래문화를 수용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래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문화 기반으로서의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문화의 가치가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역문화는 일정지역의 주민집단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지역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서의 문화적 장점을 지니고 있고, 지역이 갖는 이질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간적 문화의 다양성을 띄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장점과 다양성이 한국문화라는 하나의 문화 패러다임속에 통합될 때 한국문화는 문화의 보편적 목적에로 한걸음씩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Ⅳ. 濟州地域文化의 特殊性

제주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지역적 환경의 특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은 한반도 주변에 산재한 무수히 많은 도서의 하나로 도서지역이 공통적으로 갖는 도서성(Fosberg 1964)을 지니고 있으며 이 도서성이 제주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일찍부터 한반도 국가조직의 하부지역으로 편재되었으므로 도서성과 더불어 중심부의 정책방향이 제주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아울러 고려되어져야 한다. 도서성은 두 가지의 속성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요인은 고립이며 다른 하나의 요인은 한정된 영토(limited territory), 즉 지역적인 협소성을 뜻한다. 해수로 인한 고립현상은 제주인들이 외부지역과의 물자나 아이디어의

교류를 용이하게 이루어 낼 수 없게 함으로써 자연히 지역자원의 이용이나 기존의 이입된 문화에의 의존을 심화시키게 된다. 또한 해수로 명확히 구분되는 지역적인 경계와 경계내의 한정된 땅덩어리는 자원의 한계를 뜻함으로 한계자원에의 적응전략이 독특한 문화요소를 생성케한다. 특히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독특한 생산양식은 육지부문화와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제주문화의 형성에 긴밀히 관련되고 있다.

1. 生態的 環境

濟州島는 지금까지 제주인이나 외지인들이 믿어왔던 것과 같이 절해고도가 아니며 한반도 남단부와는 가시적인 거리에 놓여 있다. 이러한 외부와의 지리적 근접성은 한반도내에서 정치적인 변란이 있거나 자연적 재해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구이주의 유인이 되곤했다. 또한 이는 제주도인들로 하여금 도서내에서 역경에 처했을 때에는 반도부를 도피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도 하였다.

濟州島는 한반도의 서남해상(동경 126°10－126°58, 북위 33°12－33°34)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섬(면적, 1820㎢)이다. 북으로 목포와의 거리는 약 142㎞, 동북쪽의 부산 및 일본의 대마도와의 거리는 약 274㎞가 된다. 남으로는 일본열도의 구주 장기현과 면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동중국해를 건너 남중국의 상해와 대하고 있다.

화산지형으로 섬 중앙에는 한라산(1950m)이 솟아 있고 주위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곳에 넓은 초원과 360여개의 기생화산이 산재해 있다. 토양은 화산회토로서 돌이 많고 지표를 이루는 현무암은 투수성이 높아서 강우시 내린 빗물이 지하로 쉽게 빠져버려 물이 귀하다. 하천은 한라산 남사면과 북사면으로 흐르며 대부분이 강우시만 흐르는 건천이다.

기후는 한반도에서와 같이 몬순기후대에 속하나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연평균 기온이 14.7 C로서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다. 그러나 도서지역으로서 바람이 많고 강하여 평균풍속 4.8m/s,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심하며 풍속이 10m/s.가 넘을 때가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 8월과 9월동안에 빈번히 내습하는 태풍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이다. 강우량은 년평균 1440㎜이며 산남지역에는 1600－2000㎜로 국내 최대 다우지대에 속한다. 그러나 강우가 하계절에 집중되고 있어서 지형적 조건으로 도서민은 용수공급의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1969년도 부터 실시된 지하수 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져 이러한 물공급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濟州島의 자연자원은 우선 256㎞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바다로 퍼져있는 해저자원, 특히 현재 제1종 공동어장내의 수산자원, 근해의 황금어장을 이루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총면적 1,825㎢ 중의 28.5%에 달하는 농경지와 농경지를 벗어난 목초지대, 그리고 한라산의 산림지대로 나누어지는 육상자원으로 구분된다. 제주도의 어업은 한반도 전반적인 추세에 일치하여 지극히 부진한 상태로 이

어왔다. 농업에 종속된 부차적인 업종으로 여겨졌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천시되기까지 하였다. 아직까지 중요한 지하자원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수려한 화산도의 경관은 관광자원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개발이 심화됨으로서 제주지역과 지역문화의 변화는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 歷 史

濟州島民의 조상이랄 수 있는 선주민이 과연 누구이며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제주로 건너와서 최초의 문화를 이룩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해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에 구석기인이 생활했던 흔적을 남기고 있고 이때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 보고되고 있으며(정영화 1984), 근래에는 신석기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고 있어서 선사문화는 여러단계의 양상을 띄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청규 1987). 또한 이 지역에 전해지는 다양한 신화들도 선주민의 유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는 고무적으로 제주문화의 근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선주민 문화가 한반도의, 특히 남한 지방의 선사문화와 직결되고 있거나 긴밀한 연관관계속에 형성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바로 현주민과 혈연적으로 이어져 명실공히 제주도 선주민 문화를 논의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유물 유적을 근거해 볼 때 무문토기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최초의 제주도 선주민 문화를 보여주는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의 유물인 무문토기는 공열토기와 팽이형토기의 요소가 복합된 토기인데, 이러한 유물은 동 주민 문화가 함경도 지방에서 시작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의 평남, 황해도 지방의 토기문화를 흡수한 다음 제주도로 전파되었음을 계통적 흐름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이청규 1985). B.C.4000년으로 추정되는 고산리의 윤기문토기는 부산 동삼동과 북쪽으로 양양까지 이어지는 후기신석기 문화를 제주도가 공유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고, B.C.1000년으로 추정되는 북촌리의 이중구연토기 역시 부산, 김해, 흑산도로 이어지는 한반도 남단부의 문화권에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청규 1987, 1988). 초기철기시대(이청규 1985)에 한반도에서 유입된 문화에는 두 계통의 문화양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우선 하나는 한반도 자체내에서 전단계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새로 유입된 외래문화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문토기, 마제석기의 도구문화와 지석묘 등의 묘제문화였으며 후자로는 김해식 토기 및 한식 철기문화가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외래문화적 요소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서북한 중심으로 중국 한군현의 설치의 영향으로 생각된다.(이청규 1985).

이와같이 제주도내에서 한반도 남반부와 연결되는 선사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사실은 확실하게 제주 선주민이 한반도로 부터 건너온 이주민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고서도 그 타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제주도가 한반도와 완전히 고립된 절해고도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실은 반도 남단부와 가시적 거리에 있는 섬이고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가 반도부에서 변란이나 기아에 직면한 집단들의 이주유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적 자료 이외에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다양한 신화의 내용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로부터의 부단한 인구의 이주과정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로 미루어보아 제주문화의 근원이 한반도, 그 중에서도 남반부에 두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반도내의 북방문화권과 남방문화권의 문화권의 구분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는 발굴되는 유물로 미루어 보아 남방문화와 북방문화적 특성이 혼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료에 근거한 제주의 역사는 삼성신화에서 보여지듯이 일찍히 제주에는 탐라국이라는 부족국가가 세워져 있었고 한반도내의 여러 부족국가가 그랬듯이 제주의 고왕국인 탐라국도 중심부의 하나의 강력한 국가조직으로 통합되었다.

문헌기록에 나타난 육지부 사회와의 교류는 삼국시대부터이다. 이때는 제주도가 독립을 유지하며 신라와 백제 양국과 조공무역을 실시하였으리라 보이며 고려가 건국되면서 탐라국은 탐라군으로 고려에 예속하게 되었다. 고려말에는 몽고군이 제주를 무려 1세기동안 지배하였으며 이러한 원의 지배는 제주인의 생활습속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인다(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 : 제주도편 1977 : 21).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제주도의 모든 제도와 행정권은 완전히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에 흡수 되었다. 태종 2년(1402년)에 고려시대에 명명되었던 성주와 왕자의 칭호는 폐지되었고 대신 산북을 제주로 부르고 이곳에 牧을두고 牧師가 파견되었으며 산남을 양분하여 동쪽에 정의현, 서쪽에 대정현을 두고 각각을 현감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오백여년 지속되어온 조선조의 치밀한 통치정책은 제주문화의 기본적 골격을 한국문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거의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국 초기부터 강화한 유교식 교육은 유교문화의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행하였으며, 특히 제주도가 유배지로 이용됨으로서 유배되어 온 저명한 많은 유학자들도 이 지방에 유학을 보급하는데, 주민들의 교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행하였다. 제주인의 행위양식은 조선조의 제도와 정책으로 제시됨으로서 주민의 윤리체계, 종교유형, 신분제도(조성윤 1989), 토지를 비롯한 주요자원을 포함해서 모든 재화의 소유양식은 한반도를 통틀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국문화의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헌기록에 나타난 조선조의 제주인의 역사는 질곡의 역사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낸다 라는 말로 표현되었된 제주의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 통념화 되었듯이 제주도는 인간이 거주하기에 여의치 않았던 三災의 섬이며, 600여년동안 流刑史가 얼룩진 섬이며, 무려 200년 동안 출륙금지령(1629-1830)으로 외부 지역으로 제주도서민의 이주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폐쇄적인 생활이 강요되었던 섬이다.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죽어 갔으며 이러한 악재에 더하여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렸던 도서민들은 모두 제주섬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흉년과 부역, 공물가중에 더하여 왜구의 출몰 등이 출육의 원인이 되었으며, 제주인들의 이도가 계속 많아지자 조정에서는 급기야 출육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 금지령이 풀리면서 제주도는 일제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해방후에 주민들은 四.三事件이라는 처절한 살육과 파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사회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어두운 제주의 역사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에 이르러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제주도는 국민 관광지로 부각됨으로서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문화도 급속도로 변질되고 있다.

3. 言 語

문화는 언어의 조건이며 동시에 그 산물이라는 J. 듀우이의 관점을 수용한다면 문화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문화와 언어의 이러한 관계는 문화를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본질적인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E. B. 타일러가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로 정의 했을 때 지식, 예술, 법률은 언어와 분리되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므로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도 문화의 양태를 고찰하기 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제주도 언어에 대해 관심을 기울려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하겠다.

제주도 언어 즉 제주도 방언은 다른 지역의 방언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다. 지리적 환경으로 맨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육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점이다. 이 점이 바로 제주도 방언을 다른 지역의 방언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함'의 근거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러한 독특함은 역사 기록에 나오는 대로 중국, 일본, 유구인 들이 제주도에 표류했다거나 제주인들이 중국, 일본, 유구, 안남 등이 표류했다가 돌아왔다는 점과도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 방언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두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해로상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모두 수용하기에 좋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제주도가 그러한 문화를 실제로 수용했다는 근

거가 제시되어야 제주도 방언의 형성, 전개를 설명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육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 하더라도 육지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상의 탐라국은 처음에 加羅國, 백제와 교류가 있었다. 특히 "백제 무령왕 4년 이전에는 백제에 소속되었기"(김종업 1986 : 16)때문에 교류가 빈번했을 가능성이 많다. 고구려와의 경우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수록된 고구려어와 탐라어의 유사성(김인호 1989)만으로도 그 정도를 짐작케한다.

고려 후기 1270년에 제주도는 몽고군에 항전을 전개했던 삼별초의 최후 근거지였으므로 "삼별초군의 제주도 入據가 언어, 풍습 등 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했으리라는 점"(박용후 1960 : 488)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삼별초란이 진압된 후 탐라는 1백여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때 몽고의 문화와 언어가 탐라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도 또한 그렇다.

그러나 조선조의 인조 7년(1629)부터 순조말(1830)까지 200여년은 出陸禁止라는 강제적 정책이 시행되어 제주도의 언어와 문화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제주도가 아직까지 15세기, 16세기의 고어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제주도 방언의 특징은 음운 문법 어휘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현평효 1986).

첫째, 음운상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모음인 'ㆍ', 'ㆍㆍ'의 존재와 어두자음군의 격음화, 제2음절 '이'앞의 말음'ㄹ'의 〔l〕발음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ㆍ'모음은 훈민정음에 그 조음방법이 "舌縮而聲深"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서울 등의 중부 방언을 비롯한 다른 지역 방언에서는 16세기 내지 18세기 중엽에 소실된 음이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만은 유독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 ᄀᆞ늘다(細), ᄀᆞᆫ다(日), ᄃᆞ리(橋), ᄂᆞ누다(分), ᄇᆞ름(風), ᄀᆞ다(掘).
2) ᄯᆞᄯᅳᆺ하다(暖), ᄃᆞᆫ ᄃᆞᆫ이(단단히), ᄂᆞᆯ(菜), 다ᄉᆞᆺ(五), ᄋᆞᄉᆞᆺ(六), ᄀᆞᆯᄒᆞ다(깨끗하다), 보름ᄃᆞᆯ(望月).
3) 각ᄌᆞ(各自), 중ᄒᆞᆨ생(중학생), 농ᄉᆞ(농사), ᄉᆞᄉᆞ로이(사사로이), 남ᄌᆞ(남자).
4) ᄀᆞᆺ(邊), ᄂᆞᆺ(顔), ᄀᆞᆺ(乳), ᄑᆞᆯ(腕), ᄃᆞᆯ(女息), ᄎᆞᆷ(眞), ᄑᆞᆺ(小豆), ᄒᆞᆨ(土).

1)은 제1음절에서 'ㆍ'음이 실현되는 예들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가장 많다. 2)는 제2음절에서 'ㆍ'음이 실현되는 예들인데 합성어, 첩어의 경우는 이러한 예들이 꽤 있지만 순수한 우리말의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어서 소실되어 가는 상태에 있다. 3)은 한자어에서 'ㆍ'음이 실현되는 예들이다. 이 한자어의 경우는 제2음절에서도 'ㆍ'음이 빈번히 실현된다. 4)는 단음

절에서 '.'음이 실현되는 예들인데 이러한 경우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상 열거한 것만 가지고 보아도 제주도 방언에서 '.'음이 얼마나 강한 세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중모음인 '..'는 오늘날에 와서 어의구분의 기능적 단위가 되지 못하고 주로 '〔jㅇ〕' 모음과 더불어 사용되고 있다.

5) ᄋᆞᄃᆞᆯ(여덟), ᄋᆞᆯ(側), ᄋᆞᄉᆞᆺ(여섯), ᄋᆞᄅᆞᆷ(夏), ᄋᆞ남은 (十餘).

위의 예들에서는 '..'음이 분명히 실현된다. 이 '..'음은 다른 지역 방언에서는 소실된 모음인데 제주도 방언에서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어두자음군의 격음화 현상은 다른 지역의 방언에도 어느 시기에 나타났던 적이 있으나 경음화 현상에 밀려 사라지게 되었고 제주도 방언에서는 오히려 안정을 찾은 것으로 이기문은 설명하고 있다. 어두자음군의 격음화 현상에 대해 강정희(1988 : 9)가 예시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어	제주방언	표준어
ᄠᅱ다(跳)	튀다	뛰다
ᄡᅢ(ㅇ)	태	때
ᄯᅳᆫ(他)	ᄐᆞᆫ	딴
ᄯᅳᆯ다(浮)	트다	뜨다
ᄲᅡᆺ(隻)	착	짝
ᄲᅥᆺ다(織)	차다	짜다

제2음절 '이' 앞의 말음 'ㄹ'의 〔l〕발음 현상은 음운 현상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것이다.

6) 불히 뿔이(根), 골히 골이(環), 멀위 멀이(山葡萄), ᄀᆞᆯ히다 ᄀᆞᆯ이다(擇) 실히다 실이다(시리다)

6)에서 '뿔이 골이 멀리'의 'ㄹ'이나 'ᄀᆞᆯ이다. 실이다'의 'ㄹ'은〔ll〕로는 발음이 안되고 〔r〕로는 더구나 발음이 안 되어서 〔l〕로만 말음이 되는데 이것은 'ㄹ'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ㅇ'에 어떤 자음적 요소가 있어서 'ㄹ'로 하여금 〔l〕로 발음되게 하는 것으로 현평효는 보고 있다. 말하자면 'ㄹ'이 하나의 자음으로서 제2음절(다음 음절)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앞음절 말음인 'ㄹ'은 〔l〕음으로 발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평효는 또한 '불히 뿔이 골히 골이 ᄀᆞᆯ히

가 ㅇ이다'에서의 'ㅇ'의 'ㅇ'을 유성후음[h]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ㅇ'의 어휘들은 제주도 방언 중 'ᄆᆞᆯ이 ᄆᆞᆯ리(粉)', ᄀᆞᆯ이·ᄀᆞᆯ리(宗) 등에 나타난다.

둘째, 문법상의 특징들은 용언어미, 경어법, 형요사 어간, 연결어미, 격어미 등 광범위한 곳에서 나타난다.

7) 난 저래 감저 (난 저리 간다)
   철순 박긔서 놀암져 (철수는 밖에서 놀고 있다)
8) 이레도라, 내 ᄒᆞ저 (이리 주어라 내가 하겠다)
9) 난 가키어 (나는 가겠다)
   이거 사쿠가? (이것 사겠읍니까?)
10) 오늘 비 오쿠다 (오는 비 오겠읍니다)
11) 는 책 다 익언다? (너는 책을 다 읽었느냐?)
   느 뭐 먹을디? (너 먹겠니?)
12) 는 ᄒᆞ교에 가라 (너는 학교에 가거라)
   놀랑 이디서 공부ᄒᆞ라(너는 여기서 공부하라)
13) 가의 오라라 (그 애 오더라)
   그건 철수가 ᄒᆞ여라(그것은 철수가 하더라)

7)부터 13)까지 예시된 문장들은 모두 용언 어미의 활용에 있어서 제주도 방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7)에서의 어말어미 '-저'는 평서법 어미인데 옛 문헌에는 '齊'字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어간과 어미 사이에 있는 '-암, -엄'은 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방언이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 방언 특유의 어미이다. 8)에서의 '내 ㅇ저'의 '-저'는 話者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이며 9)에서의 '-키여', '-쿠가'처럼 '-ㅋ-'이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거나 청자의 묻는 경우 그리고 10)에서의 '-쿠다'처럼 '-ㅋ-'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11)에서의 '-다', '-디'는 의문법 어미인데 15세기, 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어미이다.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말할 때는 12)에서처럼 下待命令法語尾 '-라'로 나타난다. 또 제주도 방안에서 '-아라', '-어라', '-여라'는 명령법이 아니고 회상법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13)이 그 예이다.

객체를 존대하는 형태소는 '-우-', '-마씀' 두 가지이다.

14) 저거 우리 집이우다 (저것이 우리 집입니다)
   이거 우리 ᄒᆞ교우다 (이것은 우리 학교입니다)

15) 철 수 공부ᄒᆞ염서 마씀? (철수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까?)

14)에서 처럼 어말어미 '-우-'로써 상대자를 존대하는 것은 제주도 방언 특유의 것이다. 15)에서의 '-마씀'도 상대자를 존대하는 언어표현으로서 존대표시의 형태소이다.

제주도 방언에서의 연결어미는 경우에 따라 'ㅇ'이 접미되면서 그 어형이 단축되는 현상이 심하다.

16) 강 보앙 사 ᄀᆞ정 오라 (가 보아서 사가지고 오너라)

16)에서의 '강, 보앙, ᄀᆞ정'은 모두 'ㅎ'이 접이되어 있고 'ㅎ'이 접미되면서 어형이 단축된 것들이다. 이 'ㅎ'은 종결어미에 접미되는 수도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의 격어미는 '-랑, -네, -긔, -듸, -레, -더레, -로, -영, -신다, 신더레, -ㅇ라, 등으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7) 늘랑 이디 시라 (너는 여기에 있거라)
18) 느네 집이 글라 (너의 집에 가자)
19) 집의 강 보자 (집에 가서 보아라)
    박긔 나가지 말라 (밖에 나가지 말라)
    아방은 밧듸 갓저 (아버지는 밭에 갔다)
20) 가의 ᄒᆞ교레 가라 (그 애 학교에 가더라)
    그 사름 산더레 올라라 (그 사람 산에 오르더라)
    이건 서월로 보내라(이것은 서울로 보내라)
21) 나영 느영 ᄒᆞᆫ디 가게 (나하고 너하고 함께 가자)
22) 나신디 ᄀᆞᆯ지 말라 (나에게 말하지 말라)
23) 늘ᄀᆞ라 기영 ᄀᆞᆯ아냐? (너더러 그렇게 말하더냐?)

17)에서의 '늘랑 집의 랑'의 -랑'은 단순한 주제격이 아니라 特定 條件法的 強意化하는 의미를 지닌 격이어서 표준어의 '-은, -는'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18)에서의 '느네'의 '-네'는 인칭대명사와 접미되어 있는데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격어미이다. 19)에서의 '집의'의 '-의'와 '박긔, 밧듸'의 '긔, 듸'는 처소의 뜻을 나타내는 격어미이다. 20)에서의 'ᄒᆞ교레, 산더레, 서월로'의 '-레, -더레, -로'는 일정한 처소를 향하여 행동할 경우에 쓰이는 격어미이며 21)에서의 '나영, 붓이영'의 '-영'은 '-여'에 'ㅎ'이 접미되어 형성된 것인데 與同의 뜻을 나타내는 격어미이다. 그리고 21)에서의 '나신디'의 -신디'는 有情性의 체언류에 연결되는 여격 형태이다. 23)에

서의 '늘ᄀᆞ라'의 '-ᄀᆞ라'도 여격형태인데 유정성의 체언류와 연결되고 'ᄀᆞᆯ다. ᄒᆞ다' 따위의 용언과 호응하여 쓰이는 격어미이다.

셋째 어휘상에 나타나는 특징은 고어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한 語詞가 변형으로 나타남은 물론 말에 따라서는 서너 語形으로 나타나서 그들 어형이 함께 공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4) ᄀᆞᆯ다(替磨), ᄀᆞ슴. ᄀᆞ음(材料)
ᄀᆞᄉᆞ락(芒), ᄀᆞᄐᆞ다(如), ᄀᆞ초다(備)
25) 남. 낭. 나모. 나무(木)
ᄂᆞᄆᆞᆯ. ᄂᆞᄆᆞᆯ. 나ᄆᆞᆯ(蔡)
ᄆᆞᆫ. ᄆᆞᆫ딱. ᄠᅳᆫ짝. 멘딱. 모도(都合)
ᄉᆞ나의. ᄉᆞ나이. 소나이(男)

제주도 방언에 우리나라의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고어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24)에서 예시된 어휘들은 'ㄱ'과 'ㆍ'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일부이다. 그리고 25)에서 예시된 어휘들은 한 語詞가 변형으로 나타나거나 그들 語形이 함께 공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다.

이상 제주도 방언의 특징을 음운. 문법. 어휘 등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김항원(1990 : 40-7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특징들은 제주도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많이 남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음운상에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서 'ㆍ'음의 사용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긍정적 반응이 59.2%, 부정적 반응이 29.0%로 나왔고 격음화된 어두자음군의 사용여부에는 50.9%가 긍적적 반응을, 42.4%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법상에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서 '-암. -엄'과 같은 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태소의 사용여부에는 긍적적 반응이 65.7%, 부정적 반응이 26.6%이며 여격 '-신디'와 객체존대의 표현 '-마씀'의 사용여부에는 긍정적 반응이 56.8%, 부정적 반응이 34.0%이다. 그리고 어휘상에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서 '낭 (木)'의 사용여부에는 58.8%가 긍정적 반응을, 26.5%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방언에 대한 친근감은 83.0%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으며 51.1%의 사람들이 표준어나 타지방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육지에 갔을 때 제주도 사람과 제주도 방언을 쓰는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73.6%, 부정적 반응이 15.3%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도 방언에 대한 호감의 정도에는 79.3%가 긍정적 반응을, 13.4%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제주도 방언은 제주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야이다.

4. 藝 術

문화는 창조되고 전승된다. '문화'라는 용어로 불리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현상으로서의 문화'도 창조된 것이며 특별한 이유로 소멸되지 않은 한 계속 이어지게 마련이다. 문화의 이러한 성격을 중시할 때 우리는 창조문화, 전승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임재해 1986 : 34-36). 예술 분야 중에서 구비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설화와 민요는 창조문화, 전승 문화의 성격을 어느 분야보다도 뚜렷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설화와 민요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민속문화라 할 수 있고 음성언어 즉 말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에서 말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설화 중에서 전설과 민담, 그리고 민요를 중심으로 제주도 문화의 특수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항원(1990 : 107)은 『제주설화집성(1)』의 설화 217편과 『남국의 민담』 1.2편에 있는 민담 45편 총계 262편을 주제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	빈도수	백분율
풍수지리(명당)	51	19.5
힘센 장사. 힘센 할머니	29	11.0
제주의 지연과 관련된 이야기	33	12.6
역사적 인물	15	5.7
효자. 효부 이야기	12	4.6
은혜갚은 동물 이야기	12	4.6
여자로 변신한 여우 이야기	9	3.4
당이야기	8	3.1
명의	6	2.3
뱀이야기	6	2.3
설촌. 설문이야기	5	1.9
도깨비	5	1.9
전설상의 인물	4	1.5
이좌수 이야기	4	1.5
계모이야기	4	1.5
욕심부리다 망함	4	1.5

목사나 현감이 된 이야기	4	1.5
관노의 기지	4	1.5
조상신의 내력	3	1.1
벼슬받은 이야기	3	1.1
선녀의 사랑	2	0.8
첩의 악행	2	0.8
어부 아들의 과거 합격	2	0.8
별이 된 이야기	2	0.8
여자의 마음과 욕심	2	0.8
중에 관한 이야기	2	0.8
기타	29	11.0
계	262	100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명당(묏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제주도의 문화 배경에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컸음을 짐작케 한다. 사실,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묏자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묏자리를 잘 씀으로 해서 아들을 얻게 되거나 벼슬을 얻게 되며 부자가 되고 인물이 난다고 굳게 믿어온 것이다. 반대로 묏자리를 잘못 쓰거나 파헐당하면 망해 버리고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유명한 地官 이야기가 나오며, 제주도에 큰 인물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혈맥을 끊기위해 '고종달 설화'가 4회나 나온다. 심지어 용궁에 살면서도 조상의 묏자리를 지킨 이야기도 나온다. 위의 표에 나온 이야기들은 대체로 제주도라는 섬 특유의 생활 공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섬사람으로서의 한계성을 보여 주거나(힘센 장사, 힘센 할머니 설화)제주도 여성들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힘센 할머니 이야기)이야기들을 비롯한 뱀신앙, 당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모두 그러한 것들이다.

제주도의 說話는 내용에 따라 제주의 地緣에 따르는 自然의 思想을 설명하는 자연설화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역사설화, 그리고 지리, 풍수, 속담에 관련된 신앙설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설화에는 산악, 암석, 지소에 대한 내용에 특이한 것이 많고 역사설화에는 異人, 장사, 여걸에 대한 내용에 특이한 것이 많으며 신앙설화에는 풍수, 蛇神에 대한 내용에 특이한 것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설화의 내용은 단순한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아 드리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임을 굳게 믿는 사실성에 바탕을 둔 이야기이다. 설령 그내용이 허구로 가득찬 것이라 할지라도 화자나 청자는 사실임을 굳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설화는 민중의 의식에 뿌리를 내린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현용준 1977 : 293-296).

제주도 설화가 지니고 있는 사실성과 현실성이야말로 제주도 설화가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에 밀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사실성과 현실성은 자연설화, 역사설화, 신앙설화에 똑같이 나타나는데 제주도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정신적 근간과도 관련이 깊다. 가령 자연사상을 설명하는 자연설화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어느 조상의 행적을 설명하는 역사설화는 숭조사상을, 지리. 풍수. 속신에 관련된 신앙설화는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상게서 : 294). 이것은 제주도 설화의 기능적 측면이기도 한데 창조문화, 전승문화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요는 원래 음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민요의 사설은 문학의 영역에 속한다. 연구자에 의하면 제주도에 전승되는 민요에는 노동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노동요 가운데서도 婦謠가 많고 풍부한 사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필요한 어구의 반복이나 상투적 관용어의 내용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 민요의 사설은 일부의 경우, 기록문학(창작문학)에 대비될 만큼 시적 가치가 높다. 특히 '맷돌. 방아노래'는 더욱 그렇다(김영돈 1985 : 129).

제주도 민요의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제주도 지역의 전승문화는 그 본질의 한가닥을 제주도 민요에서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 특징별로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요가 많은 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수단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자료가 보고 되지 않고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민요들이 많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예를들면,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해녀노래'를 비롯하여 '밭밟는 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밭가는 노래', '나무 내리는 노래', '꼴베는 노래', '탕건 노래'등은 그 분포 지역이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다(상게서 : 132).

제주도 민요의 노동요 중에는 婦謠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가지 확인된 제주도 노동요는 31종인데 男謠는 15종이고 婦謠는 7종이다. 그러나 사설의 수효로 보아서는 '맷돌. 방아 노래'를 위시하여 '해녀노래', '김매는 노래'가 노동요 전반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엄청나다. 연구자에 의하면 노동요 1,142편 가운데 '맷돌. 방아노래'가 815편, '해녀노래'가 199편, '김매는 노래'가 44편, 도합 1,058편이나 92.6%에 이른다. '맷돌. 방아노래'만 하더라도 채록 노동요의 71%이므로 그 비중이 짐작될 만하다. 이렇게 사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첫째, 제주 여성들이 치러야 할 직능, 특히 일의 종류나 분량이 많다는 점, 둘째, 숱한 민요 사설을 전승시킬 수 있는 생업, 곧 맷돌. 방아질이나 해녀질이 유달리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상게서 : 134).

제주도 민요의 사설이 높은 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구비문학의 前文學 또는 非文學이라는 곡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맷돌. 방아노래'는 연모, 효도, 시집

살이, 고난, 부부애, 사랑, 회원, 숙명 등을 제재로 한 빼어난 사설을 보여준다(상게서 : 134-135).

이상 제주도 민요의 특징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김항원에 의하면 이러한 제주도 민요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노동요에 대한 기억의 정도를 묻는 항목에 긍정적 반응이 68.6%로 부정적 반응 15.6%보다 매우높게 나타났으며 '맷돌 노래'에 대한 기억의 정도에서도 긍적적 반응이 55.3%로 27.0%의 부정적 반응보다 높게 나타난다. '해녀노래'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 반응이 52.8%로 26.9%의 부정적 반응보다 높다(김항원 전게서 : 110-112). 이것은 제주도 민요가 제주도 지역문화의 패러다임을 추출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형예술의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제주의 초가를 들 수 있겠다. 제주의 초가는 지붕이 낮고 둥근 안정된 형태, 특이한 배치와 간결한 구조, 정서적 공간구성으로 제주 특유의 건축조형미를 표현해 내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초가양식을 지니면서도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조건이 형성한 문화의식과 생활양식이 제주 초가의 조형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전체적인 문화양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거치른 자연을 부드럽고 소박한 인간적 공간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예술적 욕구의 표현이다.

제주 특유의 전통 민속 조각인 돌하르방은 남방적 문화요소와 북방적 문화요소가 결합된 제주문화의 특이한 표현의 한 예다. 원시예술에서 보이는 강한 추상성과 제주의 돌에서 느껴지는 짙은 향토성과 토속적 민속 신앙을 내포한 유현한 상징성은 제주문화에 이색적인 색채를 부여한다(문기선 1985).

그러나 제주 민속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악 예술로서 제주민요이다. 제주민요 속에서는 제주인이 그의 생활 세계에서 느끼는 세계감정이 직설적으로 또는 승화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자연스런 선율형과 다양한 리듬, 균형잡힌 형식, 홍겹고 명랑하고 은은한 가락은 음악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개성짙은 정취를 표현해 낸다. 특히 역동적인 제주의 해녀노래는 생활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생활실상과 숙명적 고뇌에서, 고난을 딛고 이겨내려는 의지와 의욕이 민요적 선율로 상승되어 나타난 것이다.

제주의 민속 예술 역시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의 발로이다. 이러한 내적 욕구야말로 모든 예술 창작의 근원적인 계기이고, 모든 예술 작품은 그 본질에 있어 이 절대적인 예술적 욕구의 객관화이다. 그리고 또 인간의 삶과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괴로움이 예술적 욕구의 원천이다. 삶의 세계는 인간의 자유를 한계지어지고, 물질세계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인간은 어차피 삶의 세계속에서 고통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고통과 현실세계로부터 자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고통과 결핍을 가져오는 현실세계를 변화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그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예술 창작의 절대적 욕구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실세계를 부정하고 현실세계를 넘어서 있는 행복하고 진실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행복에의 욕구가 모든 예술 창조의 출발점이다. 예술작품의 가치가 美에 있다면, 이 美는 인간의 이러한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복의 가치이기에 모든 예술 양식들은 인간의 가장 높은 행복가치를 표현내 낸다.

설사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지 못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창조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그의 예술 욕구의 성취이다. 이러한 행복가치의 실현으로서의 새로운 세계창조의 욕구가 더 적극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더 초월적으로, 저 형상적으로 표현되면 상층예술과 창조적 예술로 나타난다. 민중예술 또는 민속예술도 인간의 예술 창작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이 보편적 창조적 예술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존재한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상층예술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창조적 제주 예술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제주 민속 예술은 민중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층예술로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지닌다.

제주의 민요, 건축, 조각, 공예는 제주인이 그의 생활 세계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고통과 행복 가치의 추구는 제주특유의 예술 양식을 낳는다. 제주인들이 살아온 생활 환경인 지리, 풍토적 조건과 살아오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역사적 조건이 제주인의 고통스러운 자아를 형성하고, 이 고통과 괴로운 자아와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난 행복하고, 객관적이고 형상적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표현이 제주 예술이다.

제주인의 예술적 표현은 아직은 주로 민속 예술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제주의 생활 세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으로부터 예술적 형상화로의 근원적 예술창작의 욕구는 민중 예술을 넘어 상층 예술을 창조할 충분한 잠재능력으로 존재해 있다.

5. 社 會

한국문화내에서의 濟州島 문화의 위치는 한국의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하위집단이 갖는 하위문화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하위문화는 한국문화라는 전체적인 맥락속에 서로 구분이 가능하고 독특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 갖는 문화들이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문화와 농촌문화, 영남문화, 호남문화, 도서문화, 사회계층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양반문화와 상민문화 등은 모두 한국문화를 구성하는 하위문화의 예들이다. 그러므로 한국문화는 결국 이러한 다

양한 하위문화의 총체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濟州島 문화는 도서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 도서 문화적 특성은 한반도 주변에 산재한 섬들이 인간의 서식처로서 갖는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이다. 크고 작은 수 많은 섬들은 한국문화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문화로부터 분화 될 수 있거나 원래의 문화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추가하게 되는 혹은 기존의 문화요소를 유실케 하는 도서 생태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도서생태계의 특성을 도서성(insularity)이라고 지칭되는데 이 도서성은 두 가지 속성인 고립(isolation)과 한정된 영역(limited territory), 다시 말하자면 고립성과 협소성을 의미한다(Fosberg : 1962). 고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해수의 장애에 의해 격리됨으로 해서 도서사회는 외부사회와의 물자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류에도 방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고립은 이주된 문화를 원래의 상태에서 분화 내지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서 사회의 생활 영역의 한계를 뜻하는 협소성은 우선 가용자원의 한계를 의미하게 된다. 외부 자원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하에 이러한 자원의 한계내에서 도서민들이 갖는 도서 자원에의 적응양상은 원래의 문화가 그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됨으로 해서 원문화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도서 사회에 형성하게 된다.

濟州島 문화의 특성은 이와같이 도서 생태계의 특성과 생태계내의 자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방식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화산도의 濟州島의 자원은 근해의 어족자원, 현무암으로 덮힌 연안의 수산자원과 한라산을 중심으로 고도에 따라 목초지 및 산림지대로 구분되는 육상자원으로 나누어 진다.

제주인은 전통적으로 농업은 주 생계업으로 실시하였으며 목축을 농업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복합적인 생계활동을 지속해 왔다. 전통적인 주식생산인 농업은 60년대까지도 총인구 281,720명 중 82.2%인 231,617명이 종사하고 있듯이(농업연감 1961)최근까지도 주민들의 중심적인 생산활동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濟州島는 산림지대나 목초지대가 섬의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임야지가 과수원으로 개간된 80년대 후반기에도 경지면적은 총 면적의 28.5%(519.7㎢)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경지들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전작지대를 이루고 있다. 화산암석으로 덮힌 땅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전환하는 작업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예로부터 '濟州島의 밭갈이를 생선에서 뼈를 추려내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어렵고 또 많은 노동력이 요하는 일이었다. 또한 토양도 산도가 높은 흑갈색의 화산회토로서 바람 많은 이 지역의 영농방식을 색다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라 산록, 220m-700m지대에 광활한 목야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찍부터 제주에는 목축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야산에는 가축을 해칠 야수들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목야지를 방목장으로 이용하여 봄에서 가을까지의 기간을 여기에서 소나 말들을 방목하고 난 후, 늦가을에 모든

가축은 가정으로 소환되어 우리속에서 월동하였다. 제주의 목야지는 고려때 몽고인들의 목마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조선조에 관영목장으로 되어있던 것이 정조때 부터 마을 단위의 공동목장으로 분할되어 주민 공유지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마을을 대표했던 몇몇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공동목장 지역은 70년대에 이르러 헛점이 이용되어 토지 투깃꾼들에게 손쉽게 넘어가고 있다.

해산물의 이용에는 외부사회의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였고 그 밖의 생업을 천시하는 풍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어업도 일반적으로 천한 직업으로 여겨져서 농업에 전념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었다. 제주 어업의 침체된 데에는 몇가지의 이유가 있다. 우선 어선 건조금지령은 제주에서의 어업이 침체를 가져왔던 중요한 이유였다. 기근이나 전염병을 만나 인구의 격감현상을 주기적으로 경험했던 과거의 제주인들은 제주를 떠나고자 바다를 건넜다. 이러한 이유로 濟州島에는 공도현상이 예기되었고 따라서 제주인들이 육지부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륙금지령이 내려졌다. 이 령은 200여년간 지속되었으며 제주인들의 격리된 생활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때 어선 건조가 금지됨으로써 자연히 근해의 황금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맷목 형태의 원시적인 배인 태우는 바로 이러한 시기의 역사적인 산물로 보인다(한림화 1987 : 134). 이 태우로는 원거리의 항해가 불가능함으로 그것의 건조가 용인되어 이를 이용한 연안어장의 수산물 채취업은 漁期에 따라 혹은 해녀들의 채취업의 보조 수단으로 이루어져 와서 오늘날에는 제주 어업의 독특한 상징이 되고 있다. 무엇 보다는 해수의 투명도가 높고 패류나 연체류, 해조류의 생육조건이 되는 암초해역이 섬사면에 널리 형성되어 있어서 이곳의 자원을 채취하는 독특한 작업방식과 이를 전담하는 해녀는 제주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 제주어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녀 중심의 어업이 되어왔다. 濟州島에서 해녀가 어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담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성 해산물 채취자를 뜻하는 포작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과거에는 해녀의 업이 남녀의 공동 작업이었던 것이 남녀가 어울려하는 나잠업이 이조의 유교 이데올로기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남성의 나잠업이 금지됨으로서 오늘날까지 여성들만이 연안어장에서의 채취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濟州島 문화의 특성은 이와같은 분산된 자원을 이용하는 상이한 생활양식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곳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토지나 자본이 아니라 바로 노동이며 노동력만 구비되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분업체계로 육지부 사회에서처럼 남성이 야외의 일을,그리고 여성이 가사일을 전담하는 식의,뚜렷이 구분되는 경직된 체계가 아니라 여성은 가벼운 일을, 남성은 큰힘이 요구되는 일을 맡아 처리하는 식의,어떻게 보면 노동의욕에 따라 노동활동이나 노동영역이 남녀 상호간에 광범위하게 허용될 수 있는 유연한 분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대체로 목축과 어로작업은 남성이, 농사 일이나 해안의 수산물 자원을 채취하는 물질과 가사일은 여성이

전담한다. 濟州島의 자원의 특성과 이를 토대로 하는 제주인의 복합적이 생산양식을 지니고 있는 제주사회는 조선조의 강력한 家父長制를 가능케한 육지부의 집약농경 사회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으며(조혜정 1985)이러한 상이한 생산양식을 토대로 한 두 지역간의 문화적인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濟州島의 농경이 여성적 농경체계(조혜정 1988)라는 지적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농경지 개간이나 밭갈이 등 큰 힘이 요구되는 일을 처리하지만 여성은 끊임없이 일손을 요구하는 잔일들, 이를테면 김메기, 수확된 농산물의 처리 등의 일을 전담한다. 생계활동에서의 여성의 활동과 기여는 다시 바다에서의 해녀의 작업으로 강화된다.

이처럼 도서사회의 고립성과 도서내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상이한 생산양식은 노동집약적인 생산양식이 가능케 했던 문화유형과는 상이한 제주문화의 정체를 가능케하고 있다. 濟州島의 농업생산양식이 전작농업으로 원시농경양식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지적은 논농사 위주의 육지문화와 차이를 인식케 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집약농경적 생산을 토대로 한 사회는 남성의 경제생산의 참여도가 수렵 채취 사회나 원시농경사회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동 화전식의 원시농경적 생산에 비하여 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특히 일정한 기간내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남성간의 협력이 강조된다"(조혜정 1988).

여기에서 집약적 농경사회의 혈연과 문벌을 중시하는 가부장적이며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대가족 지향적인 육지부 사회와 이와 대비적인 사회로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역할을 분담하며 핵가족 체계내에서 상보적 관계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적이며 평등을 토대로 한 제주사회의 특성을 낳는 토대가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인이 가족 중심적 혈연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와는 달리 마을주민들 사이에 주요자원을 공유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 지배적일 수 있었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濟州島는 구한말 농민분해와 지주경영이 강화되던 육지부 농촌과는 상황이 달랐다. 즉 濟州島의 경우 봉건 신분제나 地主佃戶制가 미약하였고 육지의 산간지역에서 처럼 대지주가 없었고 중소지주나 영세한 자작농, 자소작농이 농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김양식 1989). 그러나 미개간 국유지가 많고 어업, 목축 등의 보조 생계수단이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무산자나 임노동자 또는 걸인이 거의 없는 濟州島 사회는 육지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강하였다(김양식 1989).

이러한 사회 경제적 상황하에 濟州島의 사회 구조 역시 육지부 사회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가족 생활면(이광규 1983, 뿌리깊은 나무 1983 : 178-187)에서 보면 濟州島의 가족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철저한 분가원칙에 의한 핵가족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육지부의 사회가 직계의 원리에 따라 부모와 장남이 동거를 원칙으로 하는 대가족을 고수하는 반면 제주에서는 장남을

비롯한 모든 자녀가 혼인함으로써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철저한 핵가족이 선호되어 왔다. 자식이 분가할 적에는 가옥 뿐만 아니라 경작지까지도 분배된다. 간혹 부모와 혼인한 자식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경작지를 나누어 따로 농사를 지으며 '솥을 갈라 취사를 분리하는' 독자적인 생활이 강조된다. 따라서 상속의 관행도 가족의 형태와 연관하여 아들들 사이에 균분제가 지배적인 형태였다. 재산의 균분은 喪禮나 祭禮 등에서 의무분담과 직결되며, 특히 제주에서의 제사의 분배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보기드믄 현상이다.

이처럼 부부중심의 濟州島의 가족에 있어서의 여성의 자율성과 역할이 신장되어 육지부의 가문에서의 예속적인 부녀자의 위치와는 대조적인 생활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핵가족의 원리 뒤에는 강인한 제주인의 정신이 도사려 있다. 이러한 정신은 바로 독립생활의 의지와 철저한 합리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같은 것이다. 이 합리주의적인 사고야 말로 제주의 생태적 환경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한계에 더하여 개별적인 노동에 의존하는 생산활동에서의 생산성이 엄격히 한정되어 있는데다 개인의 신체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수단이 됨으로써, 핵가족의 가족형태는 확대가족하에 생길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최소 생계단위로 분산함으로써 생산활동에서의 생산성을 높히려는 전략과 무관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분가를 원칙으로 하는 혼인은 남성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생활의 의욕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이기옥 1984). 濟州島의 핵가족은 부부중심의 성별분업에 의한 사회적인 최소 노동단위이며 가장 효율적인 생산 수단이 되고 있다.

濟州島의 마을은 水源을 중심으로 집촌을 이루고 있어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또 잡성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조를 통해서 제주, 대정, 정의를 연결하는 官道를 중심으로 산간지대에 유림들과 부농들이 모여 동족부락을 형성하며 경제생활의 중심지대를 이루었다. 반면에 양반 세력에 눌린 서민들은 해안지대에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고 혹은 산간지대로 이주하여 반농, 반목의 화전마을을 이루기도 하였다(濟州島교육연구원 1985 : 56). 양촌의 경우는 예외적이었지만 잡성마을에서 사람들은 혼인시 배우자들을 마을내에서 택하였으므로 마을내혼이 지배적인 혼인형태였다. 더욱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생활권의 범위가 좁았으므로 마을내의 혼인을 선호하였다(뿌리 깊은 나무 1983 : 184-186).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혈족과 인척의 복잡한 관계로 얽혀 긴밀한 관계속에 있는 지연단위의 커다란 집단을 이루었다. 한 부락안에는 부계의 친척 뿐만 아니라 모계친족이나, 인척까지 얽혀 생활하게됨으로서 친족의 호칭에서의 독특한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숙부, 숙모, 외숙부, 외숙모,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를 낱낱이 구별하지 않고 흔히 삼촌이라 부른다. 또 먼 친족과 가까운 친족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항렬의 사람이면 모두 삼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삼촌이라는 말은 친가와 외가, 남, 녀를 구분하지 않고 한 세대 위의 친척들을 뭉뚱그려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촌수를 중요시 하지 않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부계, 모계, 인척을 구분함이

없이 부르는 용어로 괜당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삼촌이나 괜당이라는 용어는 타지역에서 볼 수 없거나 혹은 그 사용방식이 전혀 다른 용어들로서 제주인이 타인을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삼촌은 타인을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호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호칭체계의 존재는 적어도 공동체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도가 친족사이의 근인관계를 넘어서거나 친족관계 자체를 넘어서서 강하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목장과 어장을 마을 공유제로 운영하며 자원이용의 기회를 균등히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정교한 관행은 濟州島민이 얼마나 공동체적인 생활을 중시했던가를 의식케 한다. 이와 더불어 마을 마다에 본향당을 세우고 이 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의 조상의 후손임을 인식하는 현상은 도서사회의 특성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제주인들 사이에 보이는 강한 향토애는 이와같은 공동체의 생활속에서 자라난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전통문화의 보존의 意義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재고하게 한다.

6. 종 교

종교란 광의의 의미로 "초자연적인 힘이나 존재에 대한 신앙과 그와 관련된 행위"로 정의된다. 어떤 사회의 신앙체계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하여 세계관이나 우주관, 영혼에 대한 관념, 인간과 자연 혹은 초자연적인 것과의 관계, 인간의 숙명, 그리고 사후세계 등을 표현하고 있다(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1988 : 271-272).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존재와 이와 관련된 행위와 태도, 종교적 의례의 여러 측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인식방법 및 경험적 세계에서 얻은 지식과 비경험적 세계에 대한 추측을 상호연관 시키는 사고방법을 표현하고 있다.

제주인이 갖고 있는 신앙체계도 이와같이 모든 종교가 포함하고 있는 보편적인 행위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인의 주변세계와 자신들의 숙명, 삶과 죽음,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주관을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논지를 좁혀서 주로 제주인들이 생활속에 지녀온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신앙체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제주인의 전통적인 신앙형태는 대개 두가지 유형의 것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남성중심의 유교적 의례와 다른 하나는 여성중심의 무속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유교식 남성 의례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마을 공동의례인 포제와 각 가정이나 씨족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조상숭배 의례를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의례들은 대체로 육지부의 유교적인 의례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변이된 의례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제주 사람들의 차별적인 태도들이나 행위 유형이 표현되고 있다.

제주문화적 특징으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성들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 무속신앙이다.

그런데 이 무속신앙 역시 한국의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라는 점이 의식되어야 한다. 濟州島의 무속신앙이 어디까지 濟州島적인지를 단정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바다로 분명한 경계를 이루는 제주지역의 영역 내에서 유지되는 신앙 체계라는 점과 이것이 제주인의 주변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에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속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분석의 작업을 떠나서 앞서 언급했듯이 초자연적인 존재와 이들과 관련된 신화의 분석에 논지를 한정하고 자신과 주변세계를 파악하는 제주인의 인식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濟州島의 신화가 오늘날까지 완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화가 무속의례와 긴밀히 관련되어 주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濟州島의 무속의례는 영혼관에 기초한 의례인 넋드림과 신령관에 기초한 의례인 비념, 굿 등 크게 두가지의 것으로 구분되는데 신화가 낭송되는 의례는 큰 굿과 작은 굿에서이다(문화재관리국 1977 : 109-111). 큰굿은 심방이 초소 5,6명이 동원되어 대개 3일 이상이 소요되는 종합의례인데 반해 작은 굿은 어느 한 신에 대해 드리는 단독의례로서 심방 2,5인이 하루안에 끝내는 의례이다(상기서 : 109). 의례시 신화는 의례절차에 따라 심방에 의해 낭송된다.

무속의례에서 낭송되는 신화는 흔히 '본풀이'라고 부른다. 본풀이는 말뜻으로 근본의 뜻(본)과 해석의 뜻(풀이)을 합축하고 있는 용어로서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유래와 내력을 해석하는 이야기이다(현용준 1986 : 273). 이러한 신의 내력담을 굿을 행할때 심방이 젯상앞에 앉아서 장고를 치며 읊어 나가고 굿의 관객이 이를 청취한다.

濟州島를 일컬어 신들의 고향으로 부르듯이 제주에는 일만팔천의 신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주로 무속에서 숭배되는 이들 신들은 세부류의 신들로 구분된다. 일반신, 堂神, 일가내지 일족 수호신 이렇게 신앙민 집단의 범위나 차이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첫째 일반신은 천지일월, 산과 바다, 생사병노, 농경과 어로 등 자연현상 및 인간생활의 일반적인 일에 관여하는 신들이다. 하늘을 차지하는 옥황상제, 땅을 차지하는 지부사천대왕, 산을 관장하는 산신대왕,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 절을 관장하는 서산대사, 산육신인 삼승할망, 수복을 내려주는 칠원성군, 마마신, 무조신, 생사를 관장하는 꽃감관, 저승을 지배하는 시왕, 명부사자인 명관, 농업과 축산을 관장하는 세경신, 가옥을 관장하는 성주, 문전신, 부엌신인 조왕, 집안의 출입을 관장하는 柱木之神, 울타리안을 지켜주는 오방토신, 울담지신, 눌굽지신 그리고 富 혹은 곡물을 관장하는 蛇神 등이 일반신들이다. 여기에서 옥황상제나 서산대사와 같은 외래신과 산육신, 마마신, 무조신 등 제주 고유의 신들로 다시 세분될 수 있는데 본풀이가 전해지는 신들은 모두 고유

의 신들이고 신화가 전해지는 신들에게만 개별의례는 행해진다(현용준 1986 : 160).

둘째 堂神은 한 마을안의 토지 및 마을 사람들의 제반 생활을 관장하고 보호하는 마을 단위의 신들이다. 행정구역상의 마을의 총수는 215개리에 이르나 당의 수는 300여개소, 한 마을에 한 곳 내지 두 곳의 당이 세워져 있다. 마을마다 한 곳의 당은 본향당이며 모든 당은 제일, 신명, 지명 등을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불러지기도 한다. 당신에는 거의 그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가 있다. 신의 출생에서부터 마을의 신이 되기까지의 경로, 재일, 제물, 신의 기능 등을 해설한 것이 당신화인 것이다. 당신의 기능면을 보면 여드렛당의 당신은 蛇神으로 농신이며 富의 신이고, 일뤳당의 경우는 당신이 육아 내지 치병신이다. 해신당, 개당(浦堂), 돈짓당 등의 해안 마을의 당에서는 당신은 어업신이다. 당신의 종류도 본향신, 치병신, 蛇神, 어업신, 수렵신, 산신, 농신, 목축신, 마마신 등 다양하다.

끝으로 일가 내지 일족 단위의 조상신을 들 수 있다. 이 조상신은 일가의 사람들과 혈연적 관계로 이어져 숭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관계와는 별개로 숭배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화속의 여러 신들은 제주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고 주민들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다. 이들 신들의 성격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신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애롭기만 한 신이 아니어서 돌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신이라는 점이다. 제주의 신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도로 입도해 오거나 도서내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태어난 신들로서 과거의 제주인들처럼 외롭고 굶주리고 서러움이 많아서 사소한 일에서도 쉽게 토라질 수 있는 신들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든 재앙을 신들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신앙으로 재난을 이겨내거나 견더내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주인들이 신을 섬기는 일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보인다(뿌리깊은나무 1983 : 228). 신들에 대한 이와같은 개념은 빈번히 닥치는 자연적 재해나 예기치 않게 불행을 가져오는 재난을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지식체계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신화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濟州島의 신화는 무속의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의례행위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의례는 굿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신화는 이 제의 과정에서 무당에 의해 낭송된다. 무당은 소미(小巫)4-5인을 데리고 의례를 진행한다. 큰굿이나 작은굿의 의례는 여러 단계의 부분적인 의례들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치뤄진다. 큰굿(현용준 1986 : 246-262)에서는 의례 준비가 모두 이루어진 후 초감제를 시작으로 초신맞이, 초상제, 추물공연으로 이어져, 迎神儀禮 후 잡귀들을 대접해 보내는 의례인 가수리까지 모두 24차례의 의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정교한 의례절차는 신들의 위계와 관련되고, 이러한 위계적 신들이야말로 제주인의 세계를 해석하고 삶의 과정에서의 관심의 정도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 되고 있다. 결국 큰 굿의 의례속에 나타나는 신화는 濟州島 주민의 우주관,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의례에서 신들에 드리는 개별제의의 순서는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과 그것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순서로 보아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들은 우주적 차원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이어서 인간의 삶의 존재론적 차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나서 생과 사, 환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잘 태어나 건강하게 잘 살고, 사는 동안에는 좋은 운명속에서 잘 살수 있기를 소망하며 장수를 기원했다(이수자 1989). 큰 굿 집단은 인간의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한 평생의 복락, 건강, 부귀 등을 기원하고자 큰 굿이라는 제의를 행했으리라 보인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이와같은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곳에서 재생을 소망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제주의 신들은 모두 굶주리거나 가난한 신들이다. 잘못 대접하면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늘 잘 대접하려고 마음을 써야한다.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은 다복한 일들 보다는 흉사나 재난을 맞기 쉬운 주민들의 과거의 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적인 재해나, 급작스러운 질병, 관리들에 의한 수탈 등에 시달리면서 제주인은 재난의 원인을 신들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자 하였고 그 관계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주민들의 관심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가령 애써 가꾼 농작물이 늦여름에 불어닥치는 태풍이나 폭풍우에 쑥밭이 될 수 있고 바닷일 중에 귀한 목숨 잃을 수 있다. 모든 재난은 정성을 다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은 이처럼 의례 뿐만이 아니라 일상사를 처리하는데도 나타나고 있다. 이사를 하거나 집을 손질하는 일도 신들이 묵인할 수 있는 년중 가장 한가한 시기에 신구간(이사기간)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점을 치고 길흉을 알아내고 액운이 예견될 시는 재앙을 막는 액막이 의례를 거행하기도 한다.

7. 교 육

조선조의 교육을 개괄적으로 평가할 때, 부정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방편파의 교육시책이다. 濟州島의 교육 문화는 이러한 조선조의 지방 편파 교육 시책에 터하여 길러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1]

조선조 교육시책은 철저한 왕조(수도)중심의 사관에 입각하여 그 내용과 방법으로 性理學을 강조하였으며, 글하는 사람을 가르침(Lehre der Literatur)으로써 문예적 교양인을 기르려는 현세

1) 조선조의 기형교육 현상으로 ① 계급편파 교육 ② 지방편파 교육 ③ 성편파 교육을 꼽는다. 이만규, 조선교육사(서울 : 거름, 1988)참고

적인 윤리를 그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 濟州島와 같은 변방에 대해서는 그 혜택 부여가 소홀할 수 밖에는 없었다.

물론 조선조 개국에 따른 체제정비라는 차원에서 濟州島에 태조원년(1392) 학교가 세워지는[2]등 형식교육의 제도적인 보급은 일찍부터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의 보강이라는 논리에서 검토된 예이다. 특히 개국초 조선조의 형률정비는 濟州島의 역할을 일급 원악의 유배지로나 한정시켰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조 濟州島의 敎育文化는 濟州島의 유배문화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濟州島 교육문화의 모체를 유배문화라고 하여도 결코 지나침이 없게 되는 것이다.[3]

조선조 형형제도의 하나로서 유배는 그 발생이 주로 정치적 상황인 당쟁에서 기인한 것이 지배적이며 정치를 통하여 참정하고 집권한 자가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형적 소산이었다. 유배는 정치적으로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원격지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 특히 濟州島와 같은 섬에는 죄명이 특별히 중한 자들에게 해당이 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죄명이 특별히 중한 죄인들이란 조선조 특유의 정치적 우승투쟁에서 결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위 정객들이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다.

그 유배인들은 濟州島에서 직.간접으로 濟州島民들의 학문과 예절을 교화함으로써 濟州島의 교육문화 진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濟州島民들의 입장에서 볼때 유배인들이야말로 교육문화의 전달자였던 셈이다.[4]

이를테면 성리학의 이상 실현에 가장 적합한 과목으로 거론되는 '小學'의 유포경로를 보면 濟州島의 교육문화 진작에 있어서 유배인들의 역할을 알수 있다.

'小學'은 朱子가 三代의 교육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유교적인 실천윤리를 강조하는 조선 사림파들에 의하여 숭상되고 보급되었는데 金宗直, 金宏弼, 趙光祖 일파로 이어지는 사림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小學'을 학문하는 처신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濟州島의 '小學'이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의 소학교육 장려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성종의 '小學'교육 장려책은 중앙에 한하지 않고 전국의 諸道諸邑에까지 미쳐 모든 학도들로 하여금 '小學'을 강독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成宗代 즉 관학에 의해 주도되었던 '小學' 장려책은 문교정책의 일환으로 재도적인 차원에서 다분히 형식적으로 관학기관에 의해 실시 되었던 것

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학교조 참조.
3)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는 1차적 기능이 유배지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의 유배인의 위상을 간과할 수 없다.
4) 이 부부에 대해서는 김태능, 제주도사논고(서울 : 세기출판사, 1982), 김봉옥, 제주통사(제주 : 제주문화, 1987)를 참고할 것. 특히 양진건의 여러 논문이 이를 다루었다.

이며 이에 반해 김종직 일파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私學에서의 '小學' 교육은 그야말로 實踐窮行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실시되어 양자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濟州島의 小學의 사상성이 본격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김종직 일파들로서 濟州島에 적거의 형을 받은 유배인들의 영향력과 긴밀히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유배인으로 洪裕孫이나 金淨 그리고 李世黃 등을 주목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小學'을 주도했던 김종직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양진건, 1989, ⓐ).

이런 예를 차치하고서라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폐원되기가지 근 200여년간을 濟州島 교육문화의 요람으로 공헌하였던 귤림서원의 배향유현 5명 가운데 3명이 유배인이라는 사실은 濟州島의 교육문화의 유배문화와의 연관관계를 간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웅변하는 사례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조선말기 제주 유배인이었던 의병장 면암 최익현은 "이 작은 濟州島는 오랫동안 개명하지 못하여 잡스런 말과 가죽옷 등 그 풍속이 비루하였는데 오현이 혹은 귀양살이로 혹은 관직으로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흥기되고 감격해서 지금까지 공경하니 그 연유를 따져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입니다"[5]라고 하였다.

비단 이러한 예는 한두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만 유배지 濟州島民들과 興學敎化의 同化를 통하여 죄수라기 보다는 潛心道學하며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한 쉼틈으로 교육자로서 많은 성과를 남겼던 阮堂 金正喜의 예는 단연 독보적인 것이다. 阮堂의 내종질로 후일 阮堂의 학통을 잇고 스승의 소전을 썼던 閔奎鎬가 남긴 기록은 阮堂의 제주 유배 생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서 濟州島의 교육문화와 유배문화와의 관계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 즉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짊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문채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6]

이렇듯 濟州島의 교육문화와 유배문화와의 관계는 밀접했다. 그런데 이러한 밀접성이란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 대한 유배인 일개인의 은전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濟州島 교육문화와 유배문화와의 접맥과정에 대해 기계론적인며 단속적인 그리고 단순한 시각에 머무른 채 조선조 교학사상체계의 전체적 맥락안에서 포괄적이며 논리적인 검토를 유보하게 될 때 유배인의 활동을 은전적 활동으로 이해할 위험을 낳게 되며 나아가 조선조의 濟州島를 의식의 변경으로 못박음과 동시에 제주교육사상의 역동적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과오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유배인들의 교육활동이나 교육사상은 그들 개인의 독자적인 것만이 아니며 또한 조선조의 전체 교학질서체계와 격리된 별개의 흐름이 아닌 공히 道統이라는 성리학의 사상적 질서체계의 영향아래 이

5) 崔益鉉, 〈勉庵集〉 참고.
6) 阮堂先生全集, 阮堂金公小傳 참조.

루어진 활동인 것이다. 즉 유배인들은 도통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며 이러한 도통의 영향력은 유배인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濟州島의 교육문화 형성에 동원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유배문화와 濟州島의 교육문화는 해석학적 순환의 고리를 연결로 긴밀히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濟州島의 교육문화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그 역동성[7]이 발휘되는데 이를테면 화북학교의 설립과정 등에서 그 예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화북의 동민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지식을 교육시킬 필요를 알게되자 유지들은 계획을 세우고 동민들은 누구나 자기의 경제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터를 닦고 출력을 하여 교사를 지었으며, 마을 몇 안되는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무보수 교사가 되어 마침내 동민들의 힘으로 화북학교를 훌륭히 설립하게 되는데 이 화북학교를 일제당국이 무상으로 접수한 것이 오늘의 화북국민학교인 것이다. 이것은 동민들이 자발적으로 중력을 모아 세운 학교이며, 현재 濟州島에서 역사가 오랜 학교 대부분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세워진 서울의 관립학교들 보다 그 학교의 역사적 배경이 감동적인 것이며 실패한 民立大學 설립운동 보다 더 고무적인 것이다(양진건 1989, ⓑ).

濟州島 근대 교육의 역동성은 濟州島의 민족운동과 긴밀히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를테면 濟州島 조천만세운동이 그 한 예이다.조천만세운동은 金時羊라는 분의 제삿날을 맞아 조천 김씨의 직계 친족들이 비밀리에 모여 거사를 의논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이 김시우는 유배인 최익현의 제주고제였던 金義正에게 가르침을 받은 斥邪계열의 전통유림이었다. 거사를 모의한 대개의 사람들은 유배인 金允植이나 朴泳孝의 영향을 받은 金膺鉉, 金應彬의 4촌 친척들로 유배인들의 영향을 조천 만세운동이라는 자생적인 국권회복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예는 제주해녀 투쟁사건으로서도 목격되는 예로 비로소 濟州島 자생 교육운동적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양진건 1990). 또한 1926년 6월에 일어났던 제주 농업학교 항쟁사건이라든가, 1928년 2월의 제주보통학교 학생들의 항쟁사건들도 바로 그 같은 예이다. 해방 후 들어 눈길을 끄는 것은 자주교육의 일환으로 개교되었던 조천중학원이다. 조천중학원은 1946년 가을에 생겨 5.10선거 때 강제 폐교를 당할 때 까지 진보적인 지식인과 지역의 유지들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교사 13명의 전부 일본에서 귀환한 유학생들이었으며 주.야간 합쳐 120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았다. 그런데 조천중학원의 두드러진 점은 그 교육내용이 사회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후일 4.3사건 당시 운동적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게 된다.

---

7) 여기서 얘기되는 근대적 역동성이란 제주도의 교육이 조선 전기나 중기에 있어서는 유배인들이나 목민관들의 영향에 힘입었음에 비해 조선후기 이후에는 제주도의 자생적 운동역량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갖게 된 제주도 교육 자체의 운동성과 방향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물론 이러한 자생성은 조선조의 전통과 무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주도의 역사적 상황과 결부된 적극적 선택으로서 보다 광범한 공동체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양진건(1990)의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4.3사건 당시에 지도부에 교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은 濟州島 근대 교육의 역동성을 간과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4.3사건 당시 핵심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본명이 이승진이었던 교사 김달삼이 1901년 濟州島 최대 농민항쟁의 장두였던 이재수의 후손이자 나아가 중종 때 기묘사화의 반체제주의자로서 제주 유배인이었던 이세번의 후손이었다는 점은 濟州島 교육문화의 근대적 역동성과 함께 유배문화의 관련성을 아울러 살펴 보게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의 濟州島 敎育은 이미 특수성은 회실된지 오랜 채 한국의 현대교육이 안고 있는 누적적인 모순을 그 보편성으로 획득하여 진행되고 있다. 즉 한국교육의 최대 병폐라고 지적되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그 파행성이 濟州島에서도 예외가 아닌채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리어 상급학교의 도외 진학에 따라 연간 감귤 조수익 2,200억(88년도 추정) 정도에 해당되는 2천억 이상의 연간 교육비가 그대로 도외로 빠져나가 지역 두뇌의 징발이라는 면에서만이 아니라 도민의 교육비 부담에 홍역을 앓게 해 濟州島의 교육을 바닥까지 고갈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건강하게 여과하지 못한채 교육현장에 그 추태가 적나라하게 재현되게 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濟州島가 성폭행 등의 청소년 성범죄가 전국에서 제일 빈번한 곳으로 보고되고 있음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교육환경적 여건으로서의 관광지라는 이념구현이 망각된 채 관광수입증대라는 현실에만 몰두하고 있음은 교육문화 자체를 인식치 못하는 처사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교육이란 학교 안에서나 이루어지는 일 정도로 취급하는 처사인 것이다. 특히 교육기회의 면에서 濟州島의 학생진학율, 소위 일류대 진학율이 국내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흔히 후자와 관련하여 워터루 전쟁의 승리가 이튼스쿨의 운동장에서 결판났다는 경구를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영국교육의 우월성과 함께 해독을 지적한 사례임을 동시에 이해할 때 濟州島의 높은 일류대 진학율이 곧 濟州島 교육의 우월성을 웅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본도의 교육환경에 대한 세심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한 두뇌를 소지한 학생들이 본도에서 교육을 받고도 한국인으로서나 세계인으로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인 제주대학교가 선진 교육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학교내의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유수한 연구인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해외의 우수한 대학과 학생 및 교수들의 빈번한 그리고 활발한 교류을 이룰수 있는 자체의 연구조성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온 도민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濟州島 교육은 제주사회의 모순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濟州島 교육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제주교육이 제주사회의 모순구조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의 방향설정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다. 제주사회의 모순구조는 각 입장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지인들의 땅투기에 의한 토지잠식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 계급구조의 모순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토지 잠식이라는 요인은 자기 땅에서의 소외로 인한 濟州島 문화, 소위 濟州島的인 것에 대한 비하 내지 망각으로 내화하여 濟州島 교육의 본래적 내용성을 희실케 하는 내적 모순으로 격화된다.

현대 濟州島 교육의 문제는 곧 현대 한국 교육의 문제와 일치하고 있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고유한 濟州島 교육의 문화적 전통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무엇을 승계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될 때 보다 건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교육이야말로 문화 전통의 학습자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누적해온 소중한 지혜를 소실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V. 韓國文化와 濟州地域文化

1. 한국문화

한국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집단적 체험으로 한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행동원리나 사고방식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뜻한다.

한국(동아 세계대백과사전 1989)의 영토는 부단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날에는 아시아 동단에 위치한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 산재한 약 3,418개의 섬들로 구성된다.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의 만주와 소련의 연해주에 접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에서는 동해와 남해를 건너서 일본에 면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본토와 면하고 있다. 총 면적은 22만 1,000㎢이며 그중 남한은 9만 8,431㎢를 차지한다.

지형의 특징(상게서 참고)으로는 한반도가 단층 및 요곡운동의 결과로 대체로 동쪽이 높고 서쪽의 낮은 傾東地形을 이룬다. 높은 산들은 동해안 쪽에 치우쳐 있고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서해안에 이른다. 그래서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대부분의 하천은 황해와 남해로 흐르며 하류지역에 비교적 넓은 추적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기후(역시 상게서 참고)는 구분상 온대지방이며 몬수운(Monsoon)지대에 속한다. 기온은 위도에 비해 연교차가 크고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혹한이며 길다. 연평균 기온은 최남의 濟州島가 14.7C, 개마고원 북단의 중강진이 3.9C로서 남북간의 평균기온의 차는 무려 10C를 넘고 있다. 강우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습윤지대에 속해서 비가 많은 편이나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울릉도와 濟州島가 1,400-1,800㎜로서 최대다우 지대이며 남해안이 1,400-1,500㎜, 중부지역이 1,200㎜, 그리고 북부지역이 800-900㎜로 북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은 줄고 있다.

한민족의 형성(상게서 참고)을 보면 대체로 그 근간을 북방민족을 이루는 알타이족 중 일부가 신석기시대 이후 만주와 한반도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예맥족을 근간으로 한민족은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고아시아족, 남방민족, 중국민족 및 일본민족의 요소가 어느정도 혼성되면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와 같이 압록강, 두만강 이남이 완전히 한국화하여 명확한 지역개념이 확립되었고, 이 지역개념과 함께 한민족의 단일 민족적 개념도 확립되었다.

언어(상게서 참고)도 역시 알타이어족의 한 분파로서, 남방 퉁구스어와 가장 가깝다고 지적되고 있다. 고대 한국어는 7세기 후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신라어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언어적 통일도 가능하였다. 10세기 초반 고려가 건국되자 그 때까지 경주중심이던 신라어에서 개성중심의 고려어, 다시 말하자면 경기어가 중앙어로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중앙어가 되어 근대의 국어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15세기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1443)는 문자생활의 일대변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 방언이 한국어의 다양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 현대방언의 구획은 북부방언, 중부방언, 남부방언, 그리고 濟州島 방언의 넷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생활양식으로서의 한국문화는 한반도라는 영토 속에서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이합집산의 오랜 역사과정과 부단한 정치사회의 개편과 변화를 거치며 쌓아온 단일국가의 사회적 경험의 소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한국문화라 부르는 문화는 여러 갈래의 역사적 경로를 통해 그 정체를 추적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근원은 근세조선시대를 통해 지녀온 우리의 생활양식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상복 1982). 특히 미작중심의 집약적인 농업생산양식은 한국문화의 주류를 형성하는데 토대가 되었음은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토대위에 조선조의 양반과 상민으로 사회구조는 혈연과 문벌을 중시하는 혈연적 가족주의 사회를 이루어 놓았고(조혜정 1988 : 68-69), 부계혈통 체계와 가문중시 풍조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효의 유교적 원리에 따라 지켜지는 숭조의례는 혈연가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고 사람들의 행동도 유교의 경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農者天下之大本으로 요약되는 미작중심의 농업사회를 한국의 전통사회로 규정할 경우 한국의 전통문화는 바로 유교적 원리에 근거한 농민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의 전통문화는 상이한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크고 작은 집단의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하위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함으로써 역동적인 문화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하위문화는 한국문화라는 전체적인 문화적 특성, 이를테면 언어, 단일 민족적 근간의 혈통, 정치사회적 경험의 동질성,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행위양식을 공유하면서 지역이나 계층 그리고 집단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요소를 지칭한다.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의 濟州島 문화는 도서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제주문화의 특성

한국의 하위문화로서 濟州島 문화의 위치는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전제로한 것이며 이는 한반도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도서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도서사회가 갖는 인간의 서식지로서의 특징은 도서성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해수에 의한 상대적인 고립과 제한된 두가지 구속요인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Fosberg 1963 : 5). 그리고 도서문화는 원래 이주된 문화라는 지적이 주목된다. 인구의 이주와 더불어 전파된 문화가 새로운 도서적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사이에 원래의 문화로부터 분화되거나 변모됨으로써 독특한 분화요소가 추가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서자원의 특성과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상이한 생산양식은 육지부의 문화로부터 명확히 구분되는 제주문화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민이 농업을 주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온 것처럼 제주인들도 주 생계활동으로 역시 농업에 전념해 왔다. 한국의 농민문화의 주류를 이루어온 미작농업 생산양식과 비교해 볼 때 濟州島의 농업은 전작 농업으로서 원시적 농경방법을 가미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지역의 대부분의 마을들은 바다와 산을 끼고 있어서 일찍부터 수렵, 농경, 어로, 목축 등의 복합적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제주인의 농경이 "화전기술에 의한 율작중심의 곡물재배"(현용준 1975)였다는 지적은 제주문화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전작지대에다 최대 다우지역의 생태적 환경의 여건하에 제주의 농경은 여성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형태였으며 이것이 육지부 문화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루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하에서의 농업생산은 잡초제거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다. 경작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이 가능한 제주에서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이처럼 토지가 아니라 노동이었다. 그러므로 성별분업에 의한 핵가족의 형태는 濟州島의 복합적인 생계활동에 효율적인 최소 노동단위였으며 또 여기에서 철저한 분가의 원칙은 대가족내에서 생겨나는 놀고 먹는 한량을 제거하는 전략으로 채택되었으리라 보인다. 제주의 역사 속에 기근을 만나 굶주려 죽는자가 속출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제주인들의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의 전략은 혼인시 분가의 원칙이나 핵가족제도, 균분상속의 형태, 수눌음(품앗이) 등의 제주문화적 요소를 형성케 한 요인으로 보인다.

농민사회에서 농민들의 생계의 절약은 안전제일주의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농사일의 성과는 항상 개인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자연현상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처한 안전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여기에서 각종 의례가 지켜지며 또 호혜적 대인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한 협동조직의 형태가 나타난다. 마을의 당은 주민들의 결속의 구심점이 되었고 당이나 그 밖의 성역에서 거행되는 각종 의례는 제주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들이다. 특히 생계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무속의례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해산물 채취활동과 관련되어 거행되는 잠수굿, 영등제, 칠머리 당굿과 농업의례인 帝釋祭, 농포제, 마불림제, 그리고 시만국대제 등의 의례는 대부분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소중한 제주문화 요소들이다.

이러한 제주인의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유형, 무형의 소중한 문화 재들도 바로 제주문화의 요소들이다. 독특한 사투리, 노동과정 중에 불러졌던 노동요를 비롯한 많은 수의 민요들, 설화, 신화 등의 무형 문화재와 고인돌, 돌하르방, 그리고 200여년간의 출육금지령하의 어로활동의 유물인 태우 등은 모두 제주문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화의 요소들이며 이는 濟州島의 환경과 여기에 긴밀한 상호관계를 이루며 이어온 생활과정의 소산이다.

Ⅵ. 結論 : 地域開發과 濟州地域文化의 振興方案

1. 濟州地域 開發의 槪觀

해방 후 45년동안의 제주지역 발전은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 놓았다. 이러한 발전의 양상은 그 동안의 참혹했던 제주의 근세사를 더듬어 보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48년부터 7년동안 계속된 4·3사건은 인구의 약 30%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마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이어 6·25사변을 맞아 濟州島는 피난민으로 북세통을 이루는 동안 장기간 방치되었던 농토에는 기근이 연이어 발생하여(뿌리깊은 나무 1983 : 100)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한반도에서 삶의 터전을 찾아 바다를 건너갔다. 또한 한반도의 동해안, 서해의 도서지역 그리고 다도해의 섬지방으로 집단을 이루어 제주해녀들이 출가의 대유랑의 길을 떠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1946년에 道制가 실시되어 전라남도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갖추었고 1956년에는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는 행정구역상으로 큰 변화를 맞았었다. 남제주군 지역에서 1981년에 서귀읍이 이웃 중문면을 통합하여 시로 승격되면서 濟州道의 행정구역은 2市 2郡制로 정착될 수 있었다. 인구도 1970년에 336,000명이었던 것이 1988년도에는 남자 245,206명, 여자 257,228명으로 총 502,534명으로 증가되었다(濟州島 통계연보 1989).

濟州島의 개발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세우고 시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안되면서 부터이다. 이 때부터 濟州島의 도로, 항만, 그리고 항

공교통이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역간의 교류 뿐만 아니라 본도와 육지부와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주인은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생산에 주력하여 외부사회의 시장여건에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러나 생계경제 체계하의 농업 생산양식은 제주의 농산물이 외부시장의 수요와 연결됨으로써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50년대만 하더라도 주로 서귀포 일대에 한정되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규모로 재배되던 감귤이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군 일대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감귤의 소득은 감귤나무 한 그루가 대학나무로 불리워지고 있던 데에서 가히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주발전의 기폭제가 된 것은 아무래도 1973년도의 '濟州島 관광종합개발계획'이었다(제주신문 1986. 8. 1 도제실시 40돌). 이 계획과 더불어 지금까지 버림받던 땅, 濟州島가 축복을 받은 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선진관광지로의 도약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었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횡단도로의 개통, 일주도로 178㎞의 확장과 포장 그리고 항만확장, 수원지 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이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道制 실시 당시 육지의 일부지역과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던 해상교통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제주와 부산, 목포, 완도 등 3개노선에 대형 카페리 6척 등 모두 11척의 여객선이 운항, 신속하고 쾌적한 여행여건을 조성해 놓았다.

정부주도의 제주개발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1985년도에는 1991년도까지를 목표로 하여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을 구분하여 관광면 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의 양핵 생활권을 형성, 1991년도에 지역 총생산 1조3천1백억, 일인당 GNP는 218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문, 성산포, 표선 등 3개의 관광단지와 서귀포 등 14개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 4계절 관광을 정착화하고자 하였다.(제주신문 1985. 12. 19). 특히 이 계획은 개발의 기본방향을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국제관광을 유도하고, 관광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개발정책하에 80년대까지 제주지역 경제는 감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 수, 축산물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등에 힘입어 안정성장을 계속해 왔다. 산업의 다변화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차산업에의 종사자의 수의 격감현상을 들 수 있다. 1960년 제주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82. 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농업연감 1961), 1987년도에 이르러서는 농어업 등의 1차산업 종사자의 총수의 비가 56. 1%로 감소하고 있다(제주통계연보 1988).

기간산업으로의 농업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의 고소득 작물재배와 제주 전역으로의 감귤재배 지역의 확대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1986년부터는 농업수입이 관광수입에 뒤지기 시작하여 주도적인 산업으로서의 자리를 관광산업에 넘겨주고 있다(한라일보 1989. 11. 28). 그러므로 제주사회의 변화는 이처럼 전통적인 생계농업의 상업적 농업으로서의 전환과 관광업의 급신장에

의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너무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가히 혁신적이라 할 정도로 제주사회를 송두리채 뒤바꿔 놓고 있다. 개발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를 누적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외지자본에 의존한 개발은 개발효과에만 전념하며 외형적 성장을 추구해 온 나머지 주민들을 개발사업에서 소외시킴으로서 지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끝내는 지역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2년부터 2000년대를 향한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되었고 주민의 지역개발에의 참여의 목소리가 과거와는 달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지인에 의한 토지의 투기, 개발 이익금의 적정량의 지역사회로의 환원, 급속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발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문화의 상실로 인한 제주인의 도덕성의 상실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제주 사회는 정체되어 머물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제주인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선주민의 지혜를 간직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인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전통문화의 진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 濟州地域文化의 振興方案

제주사회는 1960년대 생계농업체계가 환금작물 재배라는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70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관광종합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책사업의 추진으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형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히기도 하였지만 무분별한 외래자본의 유입과 마구잡이식의 개발, 그리고 미시적인 정책 때문에 개발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외현상이 심화되었고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개발의 휴유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 대한 개발은 중단됨이 없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전망은 제2차 종합개발계획[8]이 발표됨으로써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제주지역개발이란 말 그대로 제주사람들의 삶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방향이 정해져야함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발은 제주도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파행적인 관광개발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파행적 관광개발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외시함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잘산다는 자체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누린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으로 개발은 반드시 문화발전의 과제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생활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개발의 방향이 관광에 있는 한 전통문화의

8) 현재 시행중인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2차종합개발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개발이 없이는 관광개발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임을 개발정책의 수행자는 유의해야 한다. 관광을 경치나 즐기고 특산물 몇 가지를 사가는 정도로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의 관광은 그 나라의 역사와 풍물, 나아가서는 독특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인류문화에 대한 교감을 깊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제주지역의 개발이 관광의 분야에 있는 한 제주인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복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계획은 바로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한국문화 속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자원화하는 데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가 유지되어온 바로 그 제주 마을의 현장에서 소중한 한국문화의 하나하나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문화가 그것이 지닌 특성으로 보는 이에게 생동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성을 지녀야 한다. 향토민속예술 행사인 한라문화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은 바로 여기에서 재현되는 민속예술이 현장성을 결여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대부분 공연되는 민족예술이 관주도 행사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고 급조되어 나와서 행사가 끝나자마자 사라져 가는 것으로 본래의 생명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각종 경연대회를 통해 몇가지 훌륭한 민속예술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소득임에 틀림없다. 민요로는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해녀노래, 맷돌노래, 방아돌 굴리는 노래, 멸치후리는 노래, 그리고 제의나 놀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주칠머리당굿, 영감놀이, 송당리 마을제, 납읍리마을제 등이 바로 이렇게 발굴된 것인데, 모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제주도 1986 : 22). 이중 일부, 칠머리당굿과 같은 의례는 현장성을 살려 재현해 냄으로써 관광자원화에 성공적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는 실패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자원화는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를 전제로 하여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주민속문화의 자원화는 현장의 생동감을 토대로할 때 그 자원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마을의 당제나 부락제 등 모든 공동의례의 부활을 이룰 수 있도속 부락민들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와해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개발과정에 잃어버린 인간적인 삶을 모색케 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일깨울 수 있는 것이다. 각 마을의 제의를 마을의 축제로 연결함으로써 제주문화의 활기를 맛보려는 관광객을 끌어모아 제주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마을제는 제일이 다를수 있음으로 다양한 시기에 독특한 의례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의례는 당제만이 아니라 마불림제나 시만대국제와 같은 농경의례나 해녀굿 영등제 등 수산의례 뿐만 아니라 목축의례와 각종 무속의례까지도 부활해 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경우 제주는 제2의 발리섬이 될 수 있으며 신들의 고향임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 마을의 제의는 관광 안내문 속에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신문과 방송

을 통해 알림으로써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 밖의 공연예술인 연극, 무용, 음악의 진흥방안도 아울러 관광자원화의 시각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서구 어느 도시에 가든지 地圖를 포함한 두툼한 관광 가이드를 받는데 여기에서 연극공연 일정이나 연주회 등의 안내가 반드시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여러가지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본도에도 '가람', '정낭', '이어도'등 10년을 넘게 활동해온 '소리', '하늘극장', '巫'등 많은 극단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연극인들이 직업화할 수 없음으로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주연극은 침체일로에 있다. 문예진흥의 차원에서, 관광자원화의 차원에서 극단에도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자립의 기틀을 닦게 해야된다. 제주의 신화, 전설, 민담을 소재로 하거나, 제주문화적 특성을 띄는 극작품을 공모하고 극작가를 지원함으로써 진정으로 제주적인 내용을 그린 연극을 공연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주도의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나 관광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전시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국립제주박물관의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박물관법에 의해 제주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이 광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어 보관되도록 규정됨으로써 제주의 소중한 유물들이 섬밖으로 유출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문화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정책당국자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좀 더 세밀한 지역 문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도저식의 획일적인 행정에 의해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우리는 빈번히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은「국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이용의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82년부터 88년까지 모두 2800여기의 분묘를 도로변에서 이장해 버렸는데 수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고유의 분묘를 개발의 명목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고유문화의 자원화의 의식을 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의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한 일부 관리들에 의해 저질러진 파행적 행정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색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히려 적절한 곳에 묘소를 마련하지 못할 망정 기존의 유적에 함부로 손을 대고 훼손하는 사례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 정책의 수립시는 문화분야의 연구소나 전문가들, 특히 인류학자나 민속학자의 전문적 견해에 의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점점 사라져가는 민속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존과 전승의 차원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도시문화, 대중문화, 서양의 기계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앙의 문화시책 또한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전체 한국문화속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앙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또 그것을 강조해야 한다.

Ⅶ. 참 고 문 헌

강정희 1988 濟州島 方言硏究, 대전 : 한남대학교 출판부.

김봉옥 1987 제주통사, 제주 : 제주문화.

김양식 1989 1901년 제주민란의 재검토,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연구회.

김영돈 1985 한국민요 속의 제주민요의 모습, 구비문학 8, 정신문화연구원.

김영돈, 김범국, 서경림

1986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제5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인호 1988 돌통시문화, 월간 관광 9호.

김종업 1986 탐라문화사, 제주 : 조약돌.

김태능 1982 濟州島사논고, 서울 : 세기문화사.

김항원 1990 濟州島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문기선 1985 선진지 조각미술연구, 「탐라문화」 제4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제주도편.

박영한 1985 문화와 지역주의-지방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발, 지방의 재발견, 한국사회과학 연구회편, 서울 : 민음사.

박용후 1960 제주방언연구, 제주 : 동원사.

뿌리깊은나무

1983 한국의 발견 : 濟州島

신용하 1990. 6. 2. 제민일보 : 2천년대를 바라보는 제주인의 정신.

양진건 1989 ⓐ. 秋史 金正喜의 濟州師弟 淵源考, 신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

1989 ⓑ. 禾北의 敎學文化,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조천만세운동의 교학적 의미(용역보고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23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광규 1983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 사회학적 측면, 탐라문화 제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기욱 1984 도서문화의 생태학적 연구－濟州島 인근 K도를 중심으로, 인류학논집 제7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90 조천만세운동의 역사적 배경(용역보고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제주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9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연구회.

이수자 1989 濟州島 巫俗과 神話硏究,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청규 1985 濟州島 先住民 文化에 대한 일고찰 : 고고학적 측면, 濟州島硏究 제2집, 제주도연구회.

1987 濟州島 선사문화의 여러 단계의 양상, 제주문화, 창간호,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우회.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열토기 문화의 위치, 한국상고학보 제1집.

1988 濟州島 상모리 토기에 대한 일고찰, 삼불 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 논총 1-고고학편.

임영방 1979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당면과제, 문화예술 논문선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임재해 1986 민속문화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임희섭 편 1988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 나남.

전경수 1987 관광과 문화 : 관광인류학의 이론과 실제(편역), 서울 : 까치.

濟州島 1973 濟州島文化財및 遺蹟綜合調査報告書.

濟州島 1986 濟州島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정영화 1984 제주연구의현황과 전망ㅡ고고학적 측면, 「탐라문화」 제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조성윤 1989 조선시대 제주도 신분구조 연구 시론,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연구회.

조혜정 1979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University ofCalifornia, Los Angeles, Ph. D. Dissertation.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 심설당.

한림화 1987 제주바다 : 잠구의 사계, 서울 : 한길사.

한상복 1982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편 서울 : 심설당.

한상복 외 공저 1989 전통문화의 자주적 현대화 방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현용준 1977 濟州島傳說, 서울 : 서문당.

1978 濟州島의 基層文化, 한국문화인류학 제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濟州島 巫俗硏究, 서울 : 집문당.

1985 濟州島 民俗文化의 保存과 開發方向, 濟州島硏究 제2집, 제주도연구회.

현평효 1986 濟州島 方言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6호.

Bennett, John

1976 The Ecological Transition, London : Perganion Press.

Fosberg, F. R. ed.

1963 Ma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Honolulu : Bishop Museum Press.

Steward, Julian H.

1955 Theory of Culture Change,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4 Cultural Ecology, in International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4 : 337-344.

Vayda, A. P. & Roy A. Rappaport

1963 Island Culture, in F. R. Fosberg ed., Man's Place in the Isaland Ecosystem, Honolulu : Bishop Museum Press.